



www.maggun.com

2019. 01 vol. 94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 김규선 경영자협의회회장

· 한경진 아소비학원장

· 김영성 화백

· 서쪽사람들 채승훈 회장

· 미즈노 군산점 임정주 대표

· 윤태복 여사

· 위험 호소,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씨네군산 동아리

· 카페베네 은파점 김차남 대표

·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군산 답사

· 군산시민예술촌 문화도시포럼

www.newgunsan.kr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Add. 전북 군산시 장미길 27 장미빌딩

Tel. 063-445-4700

Fax. 063-442-3883



GO TO THE
KUNSAN

사람으로
세상을 잇는

SMART KNU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국립 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궁금하지 않니?



제3회 캠퍼스 사진 공모전 대상작
<국립 군산대학교, 궁금하지 않니?>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교 중 전국 유일 PRIME 사업 선정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전국 유일 4개 분야 최우수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5년 연속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 063-445-1856 f. 063-911-1856 wh. icm23 (icm23)



사단법인 예사봉사단

이사장_김도경 단장_김민재

2013년 10월24일 창단하여 65세 이상의 지역 취약계층의 노인 및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반찬배달, 연탄나눔봉사, 목욕봉사등 복지서비스와 노인들의 말벗도우미, 의료·법률 상담서비스로 지역 취약 계층의 노인 및 장애인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설립

* 현재 주 6회 매일 300여명 무료급식 실시, 주 1회 30여 가정 도시락배달

- ※ 후원해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 후원자 및 봉사자 상시 모집합니다.
- 봉사 시간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주요사업 내용

사랑의 밥상 나눔터

시행시기 : 연중

장소 : 사랑의 밥상 나눔터

대상 : 서군산 및 그 외의 지역 65세 노인 및 장애인

사업내용 : 무료 급식 (주6회 300명, 11:00 - 12:00)

독거노인 가정 반찬배달 봉사

시행시기 : 연중

장소 : 사랑의 밥상 나눔터

대상 : 독거노인 가정

사업내용 : 주 1회 30여 가정 반찬배달 봉사,
동절기 (1월-2월) 주1회 50여가정 반찬배달

상담

시행시기 : 연중

장소 : 사랑의 밥상 나눔터 상담소

대상 : 지역 65세이상 노인

사업내용 : 일반상담, 의료상담, 법률상담, 신앙상담
(매주 1회씩 실시)



주소 : 군산시 칠성7길 12 (산북동 3609-3번지)

전화 : 063)468-1907 팩스 : 063)466-1907

메일 : didans0961@hanmail.net

후원계좌 : 전북은행 1013-01-1031857 사)예사봉사단

문의사항 : 사무국장 김치영(010-4592-8370)

세 개의 나이

이제 설이 되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 어느 특정한 날에 모든 국민이 똑 같이 한 살 씩 추가되는 풍습을 가진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으나 불합리한 일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개념이 각기 달라 헛갈리기도 하는데 태아 시절부터 나이를 따지는 건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게 보편적이고, 그러다보니 연말에 태어나면 며칠 만에 두 살로 치기도 하며 단순히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등 그야말로 오락가락 제각각이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정확히 만(滿)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소위 애먼 나이가 없고 모두가 공평한 기준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나 그 외 일반적으로는 각자 다른 기준이어서 나이로 인한 입씨름도 종종 일어난다.

그런데 나이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군가를 알게 된 경우 상대의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나이로 서열을 구분하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필자의 경우 누구를 새롭게 알게 되든 나이를 묻지 않는다. 궁금하지도 않다. 수많은 인간관계속에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나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나이보다 사려 깊고 건강관리를 잘해 외모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대의 변화를 귀찮게 여겨 따라가지 못하고 언어나 행동 등이 아직도 수십 년 전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노쇠해버린 사람이 있어 실제 나이를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세상은 출생 나이보다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대 조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건강과 외모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이 훨씬 더 그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작용된다. 다시 말해 생각의 나이, 건강의 나이, 외모의 나이가 인간관계에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아직도 무슨 자랑인양 나이타령을 하거나 나이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지금은 60~70이후에도 자신의 취미와 역할을 찾아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나이를 따지지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시대조류의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하며 생동감 있는 삶 자체를 즐기려 들고 어떤 나이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세상이 아닌가 한다.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911-1856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_ 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_ 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영화통닭_ 후라이드치킨 테이크아웃 / 063-445-6274
- 무리아마_ 식사권 / 063-442-0488
- 노가리&비어(수송점)_ 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곱창이최고예요(수송점)_ 곱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수송점)_ 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_ 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_ 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홍차와 국화_ 커피 음료권 / 063-446-0616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 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최혜정	송병진	노영란	백혜영	최상규
노옥례	고은경	김원기	이마리	안현일
박은실	전영조	김현수	김경의	신승우

8년의 고독

콜롬비아의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1967년 발표한 '백년의 고독'은 아우렐리아노 가문의 흥망성쇠와 고독을 다룬 대하소설이다. 중남미 문학의 마술적 리얼리즘 소설로 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고독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슬픔이 진하게 전해져오는 소설이다.

고독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 곁에서 자라고 있지만 자신이 고독해질 때까지는 그 고독의 실체를 느끼지 못한다. 어느 순간 스스로 고독하다고 느낄 때, 그 고독은 유형과 형벌의 의미가 진할 때이리라. 고독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며 이 각박한 시대에 대항하여 왔다. 오늘, 당신에게 묻는다. 고독할 때 기꺼이 한쪽 어깨를 내줄 수 있는 '한편'을 갖고 있는가.

월간 잡지 '매거진 군산'은 군산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다. 사람 이야기는 그 시대상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대리만족'의 의미도 갖는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고독한 분들에게 한쪽 어깨를 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매거진이 2011년 4월 창간한 이래 8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생각해보면 '백년의 고독'은 아닐지라도 '8년의 고독'은 되지 않을까. 외롭고 힘들었지만 매달 기다리는 독자들에게 가기 위하여 발걸음을 계속하여 왔다. 우리는 고독한 분들과 계속 함께하고, 어려울 때 기꺼이 한쪽 어깨를 내어주려고 한다.

8년여 동안 '무료'로 책을 발행했다. 고백하자면, 어렵고 험한 길이었다. 100호가 발행되는 2019년 7월호부터 '유료'로 바꾸려고 한다. 책값은 한 끼의 식사 값인 매월 7000원으로 정했다. 매거진이 한 끼의 밥값은 하리라고 본다. 군산의 목소리를 내려는 가치를 함께 지켜주길 부탁드립니다.



배포처

매거진군산은 매달 초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고우당커피숍 (월명동) 063-443-1042
- 군산CC (옥서면) 063-472-3355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동) 063-443-8283
- 군산시립도서관 (수송동) 063-462-2241
- 기업은행 (나운동) 063-467-6752
- 던킨도너츠 (중앙로) 063-443-7887
- 동군산병원 (경장동) 063-440-0300
- 미다원 (영화동) 063-462-2132
- 산타로사 (은파유원지) 063-462-9062
- 신포우리만두 (장미동) 063-445-0389
- 아리울 웨딩 (조촌동) 063-453-3200
- 오죽일식 (나운동) 063-464-5625
- 좋은사람좋은치과 (수송동) 063-466-2875
- 파라디소페르두또 (은파유원지) 063-471-8525
- 우리문고 (중앙로) 063-445-0031
- 한길문고 (나운동) 063-463-3109
- 호남공인중개사 (중앙로) 063-445-1212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 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택배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농협 302-9676-8134-21
예금주_ 채명룡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Vol. 94 | 2019.01

magazine
gun

발행인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시민기자	조종안	chongani@hanmail.net
컬럼니스트	윤승조	gsforum@hanmail.net
컬럼니스트	허종진	hjj1488@hanmail.net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사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 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2019년에는

바람겨센 날이면 속수무책
바람자기만 기다려야했던 도선장
군산 ~ 장항 여객선 오가던 곳에
동백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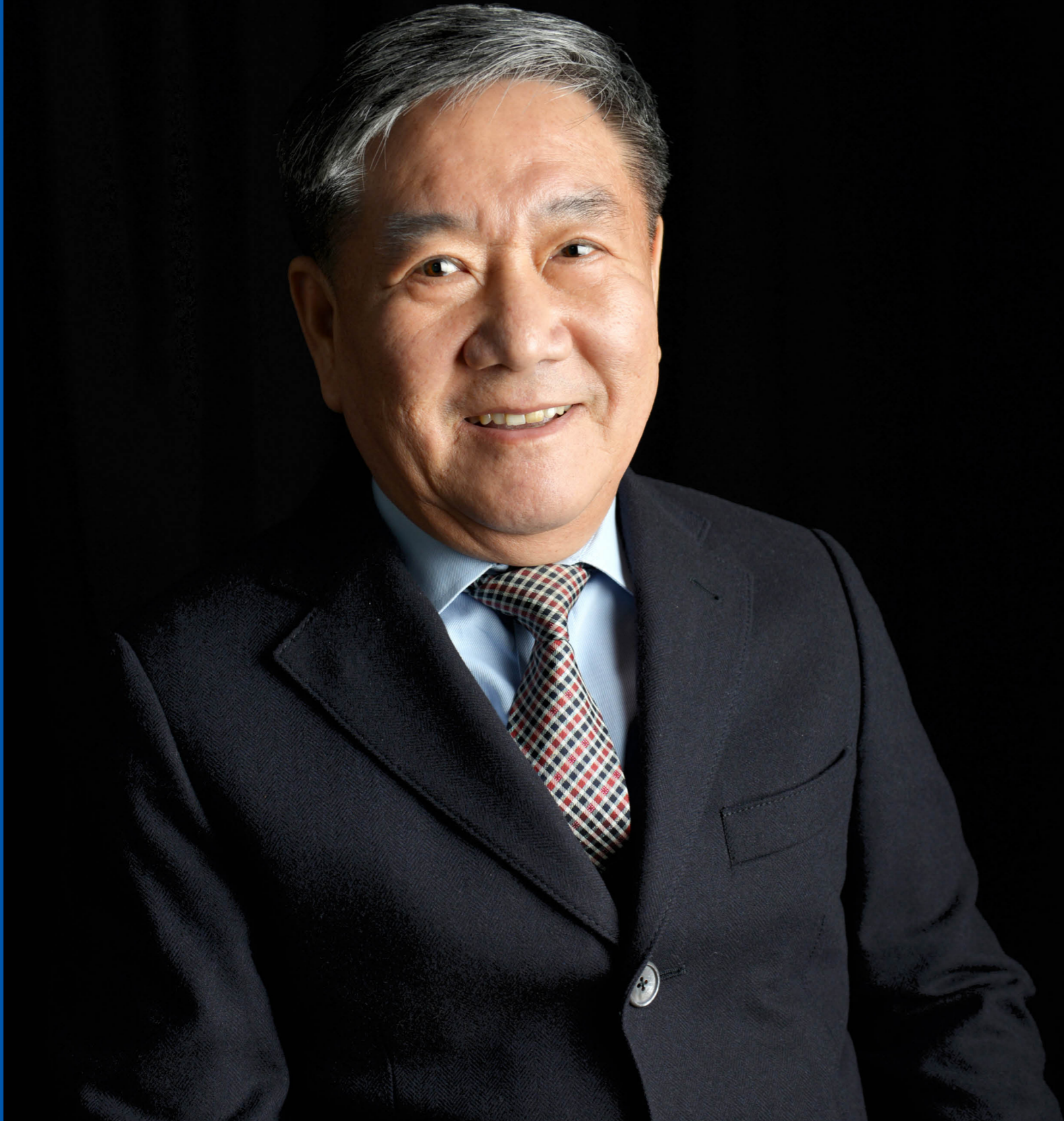
여객선 물건파는 아저씨
낭낭한 목소리 기억하는 사람들 나이
이제 반백을 넘어섰고
아흔아홉다리, 고려제지, 우풍화학,
경성고무, 한국합판, 남도극장~
수많은 군산의 기억들 세월속에 묻혔어도

개복동 언덕 위
붉은벽돌 예배당 새벽기도 소리에
새해가 밝아옵니다.

2019년에는
동백대교 희망 실은 덤프트럭
찬바람 가르듯

반복되는 실패와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지친 사람들
풍성함과 부요함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 윤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융합학과 교수



나는 한 길만 걸어 온
'생애 판도는 사관'의
표

김규선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글 | 채명룡(발행인)
cmr0118@naver.com



유난히 추워진 오늘 아침, ‘어머니, 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일찍 전화했다는 경상도 사나이 김규선.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경북 안동에 살고 계신다. 군산에 와서 정착한 게 1983년 10월이니 그는 36년째 군산사람이다.

말하자면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동서 교류의 산 증인이다. 정치적인 고비 때마다 서로 고개를 돌리곤 했던 지역정서의 벽 앞에서 마음 고생도 많았다. 지금은 군산이 편하고 좋다.

조용히 기업을 키우는 데에만 전념해왔던 그는 2017년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 회장을 맡으면서, 외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삼원중공업의 공동창업주이자 부사장이며, 같은 계열사인 ㈜티앤지중공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까웠던 지인의 소개로 군산에 내려와 대양조선을 첫 직장으로 다녔습니다. 7년을 일했고, 인접한 대신조선에서 다시 3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어 지금까지 오직 조선업 한길만 봤지요.”

서울 영동고, 인하대 조선공학과와 원광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거쳤으며, 조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 단단하게 생긴 외모만큼 그의 인생은 ‘외길’, 바로 ‘배 만드는 사람’이었다.

청년 시절 군산과 맺은 인연이 오늘 그를 군산의 일부로 만들었다.

국내 중·소 조선소 가운데 관공선 실적 1위

80년대 군산은 수산업이 호황일 때였다.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공부하고 전

공을 살려 취업을 했으나 처음 시작한 것이 어선을 만드는 일이었다. 지난 1993년 한창범 대표이사, 김규선 부사장이란 명함으로 ‘삼원기업’을 공동 창업했다. 사업 초기 7년여 동안은 수산업의 황금기여서 뜻을 단 듯 사업을 했다.

“잘나가던 수산업이 2002년 한중해운 협정으로 안강망 어선 감축이 이어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어려워졌습니다. 사업 방향을 바꿔야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관공선과 특수선 쪽을 눈 여겨 보았지요.”

위기는 곧 기회였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관공선 분야에 진출한 결과 지금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조선소 가운데 관공선 실적 1위 기업의 자리에 올라섰다.

2003년에는 한원엔지니어링을 설립했

고, 2006년 신대양조선을 인수하여 ㈜티앤지중공업을 만들었다. 2008년 ㈜삼원중공업으로 회사명을 바꿨다. 3개 공장에서 독립된 일을 하지만 같은 목적과 품질을 가진 배가 나온다.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만든 선박은 모두 256척입니다. 25년밖에 안된 중소기업이지만 매년 10척 이상씩 건조하면서 한 번도 납기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의 모토가 ‘믿음을 주는 기업’인데, 그걸 지키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술력도 일취월장했다. 200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007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014년엔 전라북도 전략산업 선도기업에 선정되었다. 2009년에는 삼원중공업 선박기술연구소를 만들어 특수선 건조에 관한 연구개발에 힘썼다. 그 결과는 조선업 불황의 시대를 건널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한미르 기공식 전경





KING POST 대조립 작업



KING POST 설치 작업



KING POST 중조 작업



주기판 탑재 작업



대통령 진수식



Ceremony and Kick-off meeting for FIVE (5) FAST PATROL BOATS FOR INDOONESIA NATIONAL POLICE

(Contract No. KJB/02/EDCF LOAN INA-21/V/2016) 23-26 November 2016 SAMWON HEAVY INDUSTRIES CO., LTD.

경비정 계약식을 마치고



삼원중공업을 찾은 외국 정부 바이어들과 협약



경비정 계약 조인식



해양연구선 연구1호 진수식

도전정신으로 이뤄낸 동남아 수출

삼원중공업은 2018년 수주건조중인 관공선 물량만 해도 36척이나 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다. 이 중에 '7년간의 노력'으로 지난 2017년 5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국립경찰청과 48m급 고속경비정 5척을 수주한 게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동남아 시장은 우리 회사로서는 가장 큰 고객이 될 겁니다. 인도네시아 국립경찰청과의 2,040만 달러 수출 실적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나라들과 관공선 수주가 활발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무관치 않게 필리핀 경찰청에서 경비정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을 받기 위하여 이 회사를 다녀갔다. 7년의 기다림 끝에 경비정 수출이라는 첫 코를 꿰었으니 이제는 날개를 다는 일만 남았다.

그는 '오늘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1983년 군산에 내려와 첫 직장을 다닐 때부터의 오로지 조선업과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가 그대로 스며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넘볼 수 없는 성역처럼 여겨졌던 특수선 수출을 변방의 작은 기업이 우리 회사가 이루었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했고,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경비정



열정으로 뭉친 그는 정년이 없는 시대의 인생 2막도 준비 중이다. 동남아와 남미 쪽의 특수선을 수주하는 걸 일생의 마지막 일로 생각하고 있다.

‘변방’ 군산에서 만들어가는 세계 일류의 꿈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세계 제일이다. 요즘 어려움을 겪고 는 있지만 세계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산업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선업계에선 변방이나 다름없는 군산에 사업장을 둔 ㈜삼원중공업과 그 계열회사들. 작지만 강한 기업의 모델인 이 회사는 기술력만큼은 세계 일류를 자부한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선박건조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이다. 해양경찰의 경비정, 해양조사선, 감시선, 어업실습선, 방제함, 탐사선 등 특수선 건조 분야로 특화

되어 있다. 계열회사의 주력인 삼원중공업은 지난 11월 3일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이 회사는 장기근속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복리후생은 기본이며, 가족적인 ‘정(情)’의 경영으로 소문나 있다.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경영진의 생각이 가족 경영으로 승화된 셈이다.

“20년차 장기근속 직원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20년이 된 직원에게는 3박4일 해외여행에 휴가비 200만원을 줍니다. 10년 동안 일하면 금 한 냥을 선물하고 직원이 결혼하면 300만원의 신혼여행비를 지원하고요. 또 아이가 있는 여직원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자유와 함께 출산 휴가 급여도 평소 급여가 100% 지급되지요.”



협력 업체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삼원중공업과 함께 해 온지 20년이 넘는 협력업체만 해도 10개 업체에 달한다. 그 회사의 기술력은 삼원중공업이 건조하는 선박에 그대로 반영되기에 '사람'을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연륜이 묵을수록 경쟁력이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다는 그의 믿음처럼 이 회사는 기술은 세계 일류, 경영은 가족 경영이다.

삼원중공업과 그 계열회사에선 중·소 조선업체 중에서 관공선 건조 1위의 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간간히 쇠를 자르고, 가공해서 붙이고, 갈아내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구나, 여기가 배 만드는 공장이구나' 깨닫는다. 서해의 입구에서 '믿음'이 쌓여가는 현장으로 손색없다.

김규선 티앤지중공업 대표겸 삼원중공업 부사장은 2년 전부터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기업 활동에 전념했던

만큼 이 지역의 기업대표로서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도 정열적이다.

그는 20대 첫 직장에서 어선협회에 자주 다녔던 인연으로 1984년 선박안전관리공단(당시 어선협회) 직원이었던 지금의 아내 오기순 여사를 만났다. 1986년에 결혼했고, 두 아들을 두었다.

“저는 조선을 공부했고, 지금까지 그 길을 천직으로 알고 걸어왔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축적한 기술을 가지고 외국에 관공선을 수출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군산사람이 되었으니 이 지역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리된 모습에서 삼원중공업 계열회사와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의의 밝은 미래를 엿본다.

㈜삼원중공업
 (주)티앤지중공업
 (주)한원엔지니어링
 군산시 동장산로 95(소룡동)
 (063)468-8711~4





“배우기가 ‘달달’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기농’ 공부, 한경진 ‘아소비’원장

글 | 채명룡(발행인)
cmr0118@naver.com

공부하기 싫어서 말썽 피우던 철부지 소녀였던 그녀가 전 문학원 원장으로 돌아왔다. 유아교육 경력 10년을 넘어서 그녀는 군산에 돌아와 최근 몇 년 동안의 공부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아이들과 함께 똥굴고 부대끼는 게 좋지만 아이들이 공부로 내몰리는 게 안타까웠다.

군산 미장초 사거리에 자리 잡은 ‘아소비 학원’의 한경진

원장. 경쟁에서 벗어나 “배우는 게 ‘달달’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화두를 던져놓은 일명 ‘유기농’ 공부 전도사이다.

여기는 똑똑한 아이들을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빨리빨리’ 키워내는 건 NO다. ‘느릿느릿’ 기초를 다져나가는 유·초등 전문학원이다. 뭘까, 이 느낌은.



아소비 학원 입구



아소비 학원의 내부 전경



학원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도대체 ‘유기농 공부’가 뭐야?

‘아소비’란 유치부(5세~초등 2학년)까지 학습지가 아니라 센터에 방문해서 모듈 수업을 하는 학원이다. 그런데 ‘유기농 공부’를 시킨다고 한다. 교구나 교재를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배우는 곳이다. 살펴보니 유기농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전해져 왔다. 쓰고, 외우는데 익숙한 아이들에게 여기는 색다른 체험일 것 같다.

유기농 공부란 ‘가나다라 아야어어’식의 읽고 쓰고 외우는 방법이 아니다. 교구를 이용하여 기능학습처럼 체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초를 잡아주는 공부 방법이다.

“4살 5살 된 아이들 부모들이 ‘한글을 빨리 깨우치게 해달라’라는 분도 있는데, 그런 엄마들에게는 ‘여기에 오면 빨리 하려면 안되며, 단계별로 천천히 가는 게 아소비 교육’ 이라고 이해를 시킵니다.”

‘기는 단계’, ‘걷는 단계’, ‘뛰는 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간다는 말이다. 유기농이 대세이고 친환경이 필수가 되었는데 교육에서도 이런 느낌의 미학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복합 비료를 주어서 작물을 속성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유기농 방법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게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잖아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교육에 가져 온 것입니다.”

신학기가 기대되는 ‘아소비’ 학원

일반적으로 ‘아소비’하면 공부방을 떠올리는데, 여기는 센터를 운영한다. 당연히 아이들이 센터에 찾아와 놀고 떠들고, 그러다가 한자씩 배우기도 한다. 느낌보 같지만 확실하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방식이다.

“저는 월요일~목요일에 2시부터 6시까지 딱 4시간만 동안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과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겐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분사 방침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에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학원인 아소비는 전국에 800여개 있는데, 한경진 원장은 아소비 원장들 세계에선 ‘신과 같은 존재’로 통한다. 3년 만에 우수교육원에 연속 선정되었기 때문인데, 그 과정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프랜차이즈 학원은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데, 여러 가지 평가와 함께 유아교육 교재활용, 정기 점검, 아이돌보능 능력 시험을 자체적으로 보거든요. 80점 이하는 재교육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100점을 맞았어요.”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신학기를 준비하고, 교과 과정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고, 논술 책임기 수업도 한다. 유치

원 초등 입학 과정은 한글 공부, 더 어린아이들은 교구 수업과 한글 깨우치기 위주로 한다.

꿈을 향해 쫓는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니, 아이들에게 ‘여기는 몰라서 오는 곳이다. 그래서 배우러 오는 거고, 그 배움은 끝 같은 거다. 달달한 꿈을 꾸자.’라고 말해주거든요. 아이들이 배우는 게 꿀처럼 달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늘 생각합니다.”

새 학기가 오기 전, 그녀는 아이들을 배출시키면서 늘 새로운 꿈을 꾸다. 내년 안에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전문 교육기관으로 엄마들의 가슴에 자리 잡게 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는 걸 목표로 했다. 그런데 복병이 생겼다. 군산이 요즘 어렵다는 걸 실감한다.

“작년에는 이맘때쯤 상담이 엄청 많았는데 올해는 뜸하거든요. 군산 경기가 좋지 않은 걸 실감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학원도 사업인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아소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원이 지향하는 연계 교육을 위해 억지 쓰지 않는다. 모든 아이들 똑같이 2학년을 마치면 졸업을 시킨다.

공부의 기쁨을 세워주는 기초적인 단계를 맡으려는 교육 과정이기에 여기까지가 이 학원의 영역이다. 이후 각 과목별로 세분이 되는 영역은 다른 교

육기관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만가만 돕는 일, 엄마들의 인기를 얻는 비결이기도 하다.

인생은 ‘아이러니’

“아빠(한문석)가 20대 청춘일 때 엄마가 세상을 뜨셨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거든요. 엄마 기억도 희미한데, 아빠가 모든 걸 포기하고지금까지 홀로 저희들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아빠예요.”

코흘리게 아이들을 아빠는 지극 정성으로 돌보았지만 엄마만 할까. 익산의 고모와 경남 합천에서 유치원을 하는 이모님의 손에 많이 의지했다. 그녀는 엄마 없는 외로움에 성장통을 앓기도 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다시 합천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 마음 속에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릴 때 보고자란 일들이 마음속에서 자랐는가 봐요.”

스물 다섯, 꽃처럼 아름답던 그녀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금요일이 되면 합천으로 데리러 오곤 했는데, 정이 들었던가 봐요. 호주로 1년 유학 갔다 온 어느 날 배가 불렀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엄마 없이 예쁘게 자라준 딸 자람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던 아빠에겐 날벼락이었다. “처음엔 아빠가 무척 서운해 하셨어요. ‘끝까지 속 썩인다고...’ 그런 아빠인데, 느닷없이 50대 초반에 할아

버지가 된 거예요. 제가 큰 딸이니깐 예쁜 추억도 쌓고 해야 하는 데 너무 빨리 아빠 곁을 떠나게 된 거죠.”

‘인생은 아이러니’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남편 따라 아이들과 용인으로 이사 갔다 4년만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군산으로 돌아왔다. “꿈을 찾아 맘먹고 내려왔는데, 셋째가 임신 된 거예요. 어린이집에 대한 꿈이 가물거렸고, 오늘에 와서 유아들과 초등 아이들을 위한 학원을 하게 된 것이니, 이 모두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나의 길’을 찾았다. 그게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갈고 닦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데 주력했다.

그녀에겐 미뤄둔 고백이 있다. 환갑을 넘어서면서 부쩍 외로움을 타는 아빠를 보면 마음 한편이 찢힌다. 큰 딸로서 다정 다감 하게 못한 것 같아서 한편 죄송하다. 이 기회에 마음 한 편에 감춰 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아빠. 혼자서 외로웠을 텐데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고, 속 썩어서 죄송해요.”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준 자랑스런 아빠의 딸로서, 또한 전라북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장초 학부모 회장으로서 따뜻하게 아이들을 안아주기로 했다.

‘아소비’에서 오래전 떠난 집을 찾아온 것 같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도 그럴 것이다.



아소비 교육 아소비 전복권 팀장을 맡고 있다



아빠와 손자 아이들



바쁜 남편과 함께



이렇게 모듈 수업을 한다



아소비에서 교구를 이용하여 배워가는 아이들



엄마의 딸



아이들을 키우듯이 학원 아이들을 생각한다

5세~9세 전문
‘아소비’ 학원 수송점
군산시 수송로 286 미장빌딩 403호
010-4024-8285



자연을 관조하는 중후한 시선

서양화 김영성 화백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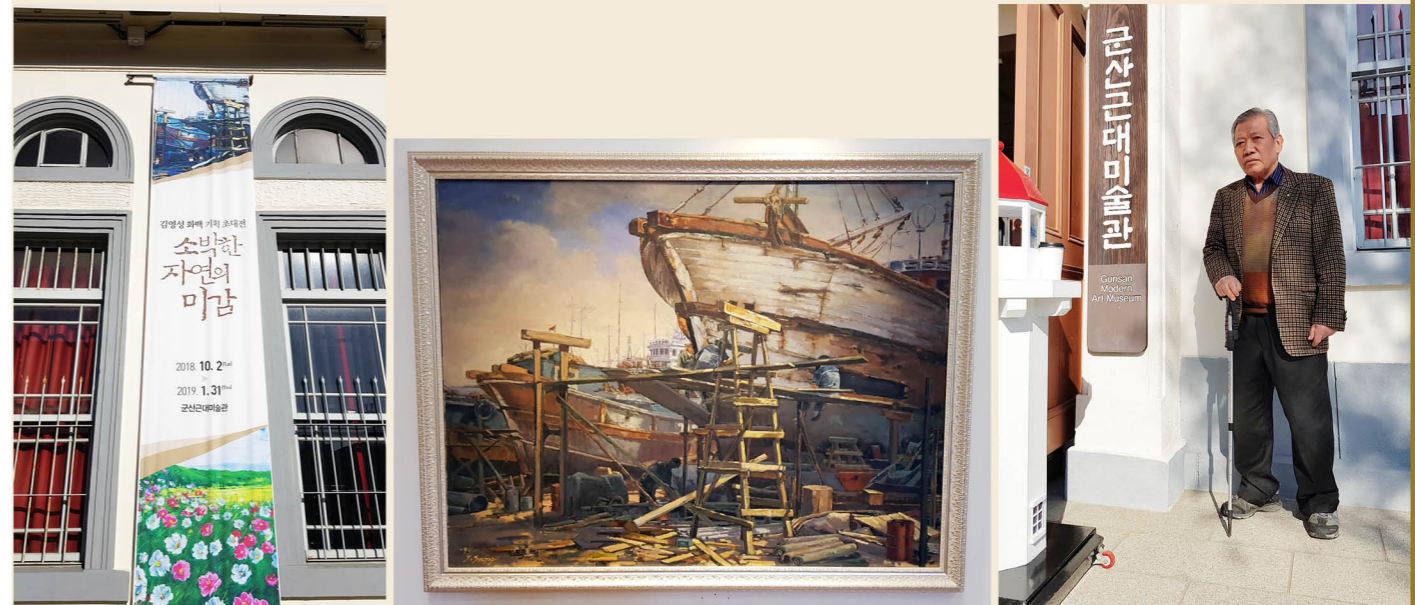
김영성(金永性)화백은 군산사범학교를 마치고 검정고시로 중등미술교사가 되었다. 이는 미술에 대한 열망으로 당시 서울대, 성신대 교수들을 찾아가 유화의 기본을 배우는 등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 시절의 작가들 거의가 그랬듯 구상에 관심이 컸던 그는 전라북도 구상작가들의 산실이랄 수 있는 전미회에 가입, 1973년부터 지금까지 구상작가로서 내공을 다져왔다. 특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직접 자연의 풍광을 캔버스에 담고자 전북의 곳곳을 누볐다. 그래서 그의 풍경화에는 군산항, 비루봉, 모악산을 비롯하여 무주구천동과 같은 빼어난 경관의 아름다움이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내면에는 '자연을 벗 삼아 같이 호흡하면서 즐기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자연과의 일체감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에서는 담담한 색채, 걸밋이나 기교를 떨쳐낸 붓 터치와 자연스런 소박미가 드러난다. 어쩌면 이 기법은 요즘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40~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화풍은 일관된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부담스러움이 없고 보는 이를 편안하게 해준다.

군산의 소박한 자연미를 담아내는 작가. 김영성은 군산을 활동 근거지로 군산중앙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군산 서양화단의 초창기 회원으로서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그는 이제 백발이 섞인 군산미협 회원으로서 군산미술계가 자리하도록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향토 미술의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는바 척추협착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와중에도 최근까지 화필을 놓지 않고 수많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는 열정은 후배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근대미술관 개인전 “소박한 자연의 미감”

김 화백은 2018.10월부터 2019.1월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장미동 근대미술관(구 나가사키18은행)에서 '소박한 자연의 미감'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기획 초대전 형식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의 그의 작품들은 모두 자연에 나가 현지의 풍경을 담아낸 것들이다. 자연과의 대화, 자연과의 호흡을 통해 대상과 동화(同化)를 이룰 때 비로소 붓을 든다는 그의 작품들은 그래서 꾸밈이 없고 진솔한 소박미가 드러난다. 그것은 어쩌면 걸밋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그의 올곧은 심성의 발로이리라. 그래서인지 김 화백이 표현하는 향토적 미감의 작품세계는 우리에게 항상 따뜻하고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작가노트 중에서-

‘자연은 조형의 창시자요, 위대한 예술의 선각자’라는 진리에 공감하며 자연을 벗 삼아 같이 호흡하면서 즐기고 느끼고 생각하며 자연의 멋과 맛을 화폭에 담아 표현한 것이 그간의 미술활동이었다. 물질문명의 이기 속에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시들기 쉬운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미술활동이 신선한 감동과 풍요로운 정서로 번져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지 않나 하며 우리생활을 더욱 수준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미술활동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문화적 욕구의 충족과 함께 삶의 질과 예술의 품격을 격상시키고자 애써왔다고 자부한다. 자연의 오묘함과 신비스런 속내를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빈약하고 벽찬 게 사실이다. 다만 자연에서 받은 순수한 구조적 형상이나 서정적 감각을 화폭에 담고자 할 뿐이다. 그 감흥을 창조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다소 서투르고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폭넓은 미술의 세계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정진하려 함이니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주요약력

군산출생(1937)
 군산사범학교(8회)졸업
 중등미술교사검정고시합격(1972)
 한국미협군산지부장(1987~1992)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회장, 운영위원장, 심사위원장(1990~2006)

개인전

제1회 군산시민회관(1992)
 제2회 “ (2000)
 제3회 “ (2009)
 제4회 초대전(군산근대미술관/2018)

공모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6회)
 한국현대미술대상전 특선
 목우회 공모전 입상(21~25회)
 전북미술대전(특선2회, 입선7회)
 전북중등미술교사전 입상(2~5회)

단체전·초대전

한국미술협회(서울/3회)
 군산미협전(1974~현재)
 전미회(1983~현재)
 상촌회(1984~현재)
 전북미술원로작가회(2000~현재)
 호미회·고미회·미사회 전업작가회전(수십회)
 전우회초대전(광주)
 각 그룹전(220회)
 KBS초대전(전주)
 한중미술교류전(20회)
 영호남교류전(5회)
 개관초대전(전북도립미술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대미술관, 군산시민문화회관, 군산예술의전당)

수상

서울특별시장상(1959)
 내무부장관상(1965)
 문교부장관상(1988)
 한국예총회장상(1992)
 전북교육감상(12회/1961~1990)
 군산미술공로상(2001)
 군산미술인상(2017)
 황조근조훈장(대통령/2001)

소장품 구매 및 기증

전북도립미술관 ‘군산탑’(80호)
 전북도의회 ‘풍요(가을)’(50호)
 군산시청 정문 정물(20호)
 군산중앙중·중앙여고 각각 ‘군산항풍경’(80호)
 군장대학교 만추(80호)



문화 재능인들의 커뮤니티

‘서쪽사람들’ 채승훈 회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왼쪽부터 문정현, 이종예(고문), 채승훈(회장), 전선미, 윤혜련(총무), 문정숙, 이종간(고문)

지난해 11월23일, 개정교회에서는 교회 설립70주년을 맞아 쌍천(雙泉)이영춘 박사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의 추모제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추앙받으며 개정교회 설립자이기도 한 이영춘 박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개최한 것으로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어느 추모행사보다 더 내실 있고 뜻깊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기획, 주관한 ‘서쪽사람들’은 2017. 2월 발족

한 문화공동체로서 사진작가인 채승훈 나인기획 대표를 회장으로, 국어국문학 전공자인 윤혜련 씨가 총무를 맡고 있으며 시 국장 출신인 이종례 문화해설사와 소리 박물관 이종간 관장을 고문으로 두고, 천연염색 전문가로서 지난해 박물관 야외무대에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한 바 있는 이해숙, 아리울역사 대표인 문정현, 좋은가치,인성학교 대표 김윤희, 영상전문 권민식을 비롯하여 시인 권선미, 시낭송 문정숙, 사진작가 김영민 등 각자



하모니카 카페에서 왼쪽부터 이해숙, 윤혜련(총무), 채승훈(회장), 이종예(고문)



왼쪽부터 채승훈(회장), 전선미, 문정현, 문정숙, 김영민, 윤혜련(총무), 이종예(고문), 이종간(고문)



의 재능으로 군산의 문화적 소재 발굴과 이를 계발, 조망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지향이라는 공감대로의 기투합된 총 11명의 회원으로 결성되었다.

채 회장에 따르면 ‘서쪽사람들’이라는 단체명은 회원들의 공모로 결정된 것으로서 군산이 속한 한반도의 서쪽은 오곡백과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들판만큼이나 문화예술 또한 발달한 지역임에도 어느 권권하에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어 자조감(自嘲感)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문화 활동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자긍심을 북돋우자는 의미부여를 한 듯하다.

실제로 채 회장은 미대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나인기획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로 쌍천 이영춘 박사가 생전에 남긴 수많은 관련 자료들을 취합, 정리하여 ‘나의 교우록’,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등의 책자를 출판, 쌍천의 일생을 세상에 알리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바 있다. 발족 2년차를 맞고 있는 ‘서쪽사람들’은 자체 행사인 ‘뜨락축제’와 ‘쌍천 이영춘추모제’ 등으로 활동을 2원화 하여 전개해 왔는데 ‘뜨락축제는 지역민들을 초대 한 가운데 실시함으로써 반응이 뜨거웠고 이영춘추모제

는 매년 고인의 기일인 11월 25일 군산의료원에서 음악회 형식으로 실시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개정교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특히 작년의 추모제는 윤혜련 총무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추모기도’(개정교회 최홍준 목사), ‘내빈소개’(사회자), ‘유가족 인사’, ‘쌍천을 말하다’(매거진군산 오성렬 국장), ‘똥이 문제야 똥이’(그림자인형극/문정현 연출, 서쪽사람들), ‘농촌병원가’(군산간호대 총동문회 안순자 외 10명), ‘선구자 외1곡’(하모니카/군산시청 최춘규 계장), ‘내가 만난 이영춘 원장님’(한국교통장애인협회 나두길 지회장), ‘쌍천의 정신 외 1곡’(색소폰/생명나무찬양봉사단), ‘쌍천의 정신/주가 맡긴 모든 역사’(소프라노 정수희),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개정교회 장로중창단), ‘어머니를 그리며’(편지낭독/개정교회 이주민 장로)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채승훈 회장이 ‘서쪽사람들’을 소개하는 순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고령을 마다 않고 미국과 독일에서도 먼 길을 날아와 참여해준 두 분의 간호대 동문이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쌍천 이영춘 추모제 (개정교회)



쌍천 이영춘 추모제 (개정교회)



쌍천 이영춘 박사의 재조명

채 회장은 '서쪽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각자의 색깔들로 만들어 낸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창(窓)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며 지역 문화 콘텐츠의 발굴, 육성 차원에서 쌍천 이영춘 박사 조명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말을 들려준다. 사실 이영춘 박사는 대한민국 1호 의학박사 학위의 인물로서 그 누구보다 출세기도를 달릴 수도 있었지만 당시 농촌의 비참한 보건위생환경을 보면서 30대 중반에 군산에 내려와 평생을 농촌보건위생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가난한 삶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그 만큼 기독교인으로서 인류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한 참 신앙인도 드물 터인데 이러한 희생정신으로 한국의 슈바이처라 추앙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면면이 수십 년이 지난 아직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저평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서쪽사람들'은 우리고장에서 평생을 헌신한 이영춘 박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것은 연극이나 영화, 동화나 애니메이션, 어린이대상 책 등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말 추모제는 좀 더 알찬 기획과 내실 있는 준비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영춘 박사의 삶과 업적에 포커스를 맞춰 우리고장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정립과 자긍심을 복돋울 수 있도록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외부 지원 없이 회원들의 순수한 아이디어와 재능협조 형태로 운영되는 '서쪽사람들' 그 취지에 공감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당장은 여건상 문화개방에 어려움이 있지만 초심을 견지하는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차차 외연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산이 개개의 문화 콘텐츠는 백가쟁명격이지만 하나의 집약된 문화 아이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터인 즉 그런 면에서 재능인들의 공동체로서 신선함을 주고 있는 '서쪽사람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주고 있다.

서쪽사람들
윤혜련 총무 : 010-4787-0946



쌍천 이영춘 추모제 내빈들



드라큘라축제



MAGAZINE GUNSAN 31

‘소확행’ 실천하며 꿈에 한 발짝 다가서다

‘미즈노 군산점’ 임정주 대표

글 | 김혜진(특별기고)

소확행(小確幸)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만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을 소확행이라고 했다. 소확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상을 쫓아 망망대해를 헤엄치지 않는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삶을 실천해 나간다.



임정주 대표



미즈노 매장

함박눈이 내린 2019년 새해 첫날 만난 미즈노 군산점 임정주 대표도 평범한 일상의 특별함을 찾는 ‘소확행’ 실천자 중 한 명이다.

“타고난 운동 신경 덕분에 어릴 적부터 운동에 관심을 보였고 덕분에 각종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장래희망을 고민할 땐 막연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스포츠 매장을 운영하리라 마음 먹었어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푸근함 속에 가려진 그의 열정은 그야말로 단단하다. 삶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단단한 열정을 만들었다. 인터뷰 내내 그는 ‘외유내강’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 보았다.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야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한 마디가 끝나자마자 운동화 끈을 묶고 집 밖을 나섰다.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뛰어다니는 게 좋았던 유년 시절 그는 동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공을 쳤다. 휴먼지를 뒤집어쓰고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땐 스트레스가 훨훨 날아가는 느낌이였다. 까까머리 소년은 가쁜 숨을 내쉬며 ‘어른이 되어서도 꾸준히 운동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진로를 고민할 때에도 운동을 항상 염두에 뒀다. 먹고 살기 위해선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이왕 하는 일이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90년대에는 이것저것 도전했다.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점상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에 뛰어들며 몇 번이나 슬럼프를 겪었지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몇 번이고 맨몸으로 부딪히는 시간을 거쳐 마침내

2009년 영동에 미즈노 매장을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답을 찾은 것이다.

스포츠 용품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기 때문이다. 운동화와 트레이닝복을 장착하고 넓은 운동장을 달리는 일은 그가 잘 하면서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다. 처음 매장 셔터를 열 때의 기분은 일을 시작할 때의 설렘 그 이상이었다. 슬럼프로 얼치락뒤치락 하던 지난날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됐다.

2012년부터는 수송동 일대로 매장을 옮기기 시작했다. 운동이 좋아 시작한 일은 그에게 여러 고객들을 상대하며 그들이 어떤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는 보람을 안겨 주었다.

수송동 매장을 정리하고 2018년이 다 지나가는 12월 지금의 아름다운 웨딩 1층으로 매장을 옮겼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의미있는 일 하고파”

“제가 보기보다 운동 신경이 좋아요.”라며 자부하는 그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신념 아래 시간이 날 때면 운동화 끈을 묶고 필드로 향한다.

일을 하면서 찌뿌둥해진 몸 이곳저곳을 운동으로 풀며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린다. 덕분에 조기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 종목을 가리지 않는 각종 동호회에서 체력을 불살라(?) 왔다.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여가를 찾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운동입니다. 특히 구기종목이 흥미로워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공을 가지고 뛰어다니면 체력증진, 친목 도모 일석이조의 효과가 톡톡해요. 스포츠 매장을 운영하며 여가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셈이지요.”

그는 제2대 군산시피구협회장이기도 하다. 일하는 와중에도 운동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은 결과다.

회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책임감에 어깨는 무겁지만 서도 휘슬 소리에 일사불란하게 구장을 뛰어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절로 기운이 난단다.

40여 명의 소룡초 학생들로 이루어진 피구협회는 남다른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창섭 코치의 지도 아래 각종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U-13 이하 아시안컵 국제피구대회에 2017학년도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해 지난 대회 우승팀 대만을 2대0으로 꺾었다.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에서 남녀 동반 우승이라는 큰 역사를 만들기도 했다.

제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피구대회 여자부·혼성부 우승,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 준우승의 쾌거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다.

사업을 하며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난관도 적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 철수로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때는 그 역시 노심초사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마음을 다잡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푸른솔배드민턴클럽 회장 이취임식



피구대회에 참가



피구대회 우승(왼쪽이 임정주 푸른솔회장)



피구대회 시상식

운동을 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관심도 늘었다. 그는 피구, 배드민턴의 경우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저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아용다용 살아가고 있으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운동을 하며 좋은 점, 개선할 점도 파악하고 있어요. 큰 것을 쫓기보단 주어진 일과 직책에 감사하며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 나가는 것. 어릴 적부터 생각한 꿈을 이뤄 온 것처럼 앞으로도 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묵묵히 하는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기쁨과 행복이 함박눈처럼 넘치는 그의 모습이 엿보인다.

매장에서 직원과 함께



푸른솔클럽 단합대회



군산시 나운동에 사는 윤태복(72)씨. 그의 고향은 경북 청송이다. 산간벽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의붓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직업이 미장이였던 의붓아버지는 까닭도 없이 어린 태복에게 매질을 가했다. 의붓아버지의 병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그는 열세 살 때 가출. 강원도 탄광촌과 대구, 안동 등지 시장판을 떠돌며 잡일, 행상, 식모살이 등을 했다.

학력은 초등학교 3개월 다닌 게 전부. 월사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의붓아버지 미장일과 개간지 밭농사를 돕는다. 호박, 들깨, 감자, 정구지 등을 장터에 내다 팔기도 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다가 엄마를 졸라 재건중학교(야간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나 곧 그만뒀야 했다.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 수학 과목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것.

성당에 다니던 그는 열아홉에 엄마의 강권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혼례를 올린다. 장래 수녀가 되는 게 꿈이었으나 불가능함을 깨닫고 엄마의 뜻을 따른다. 고행은 결혼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이 청송에서 고무신가게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가게가 있는 청송에 신혼살림을 차려야 하는데 산골짜에서 시작했던 것, 남편도 고무신가게 진짜 주인은 동생이라고

“우리 어머니의
살고,
안싸롭기도 하고
대견스러워요!”

군산시 나운동 윤태복씨...
리어카행상 3년 만에 내 집 마련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딸 돌 낳을 때까지 남편은 빗만 지고 돌아다녔다. 애들 키우느라 행상도 못 나가고 이종사촌 언니네 집 청소, 빨래 등을 해주며 끼니를 해결했다. 윤씨는 “신랑이 밍다고 굶길 수 없어 밥을 한 그릇 더 얻어오고 그랬다. 왕복 20리(8km) 넘는 길을 큰딸은 업고, 둘째는 보듬고 오가면서 수챗구멍에 콧 빠져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아픈 추억을 떠올린다.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스물네 살 때 전북 군산에 정착, 리어카행상 하면서 틈틈이 글을 익혔고, 오늘의 부(富)를 이뤘다. 그는 “열두 살 되던 해 어느 봄날 성당에 갔다가 수녀님이 수복하게 담은 흰쌀밥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그가 ‘형설지공’으로 써 내려간 회고록과 구술을 바탕으로 딸 흘러 일궈온 인생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전북 군산에서 새로운 삶 시작

윤씨는 사기결혼 충격으로 유산을 거둬들인다. 그 속에서도 참깨장사, 고추장사, 생닭장사, 연탄장사 등을 한다. 임신한 몸으로 공사판에 함바집을 열었다가 몇 개월 식대를 고스란히 떼이기도 한다. 궁여지책 끝



에 언니에게 가기로 마음을 정한다. 형부가 경찰인데 군산으로 발령이 났던 것. 당시 경북 안동에서 군산까지는 꼬박 이틀 길. 기차도 여러 번 갈아타야 했다. 그래도 군산에 가면 뭔가 희망이 보일 것 같았다

“하루는 울화가 터져 남편에게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독하게 한마디 쏟아내고는 옷이랑 기저귀랑 보따리에 싸서 머리에 이고 애들을 앞세워 집을 나왔어요. 내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겠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작은 시누이를 찾아가 ‘읍내에 잠깐 다녀오겠으니 우리 일화(큰딸) 좀 데리고 있으라’며 말하고 돌 지난 둘째만 등에 업고 나왔습니다.

안동역으로 가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기차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의붓아버지에게 매 맞고 서러움 당했는데 큰딸도 엄마와 떨어져 지내면서 나처럼 고생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큰딸에게 미안하다고 마음으로 사과하고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도 했죠.”

윤씨는 언니가 사는 창성동에 정착한다. 그리고 언니의 권유로 한복학원에 다닌다. 취향에 맞지 않았지만 ‘한복 기술을 배워보라’며 학원에 등록까지 해주는 언니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바느질과 종이에 그리는 법은 그런대로 익혔으나 치수(사이즈) 단위인 미터(m)와 센티미터(cm)는 헷갈렸다. 편지도 읽는 게 서툴고 산수도 못 하는 처지에 영문으로 갈겨 쓴 치수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언니는 아기를 잘 돌봐줬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동생이 한복을 잘 만든다고 소문내고 다녔다. 그런 언니를 봐서라도 열심히 배워야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럭저럭 한 달이 지날 때쯤 언니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하며 그만 다니겠다고 하자 언니는 ‘그럼 안동(진정)으로 가라’며 1만 원을 손에 쥐여줬다.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과일·채소 행상

친정으로 가던 윤씨는 기차에서 방향을 다시 정한다. 알량한 자존심이 ‘친정행’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대구역에서 내린 그는 구경삼아 재래시장에 들렀다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스테인리스 그릇 도매상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들을 보는 순간, ‘저걸 군산으로 가져다 팔면 큰돈을 벌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망설일 게 없었다. 언니가 준 1만 원으로 몽땅 그릇을 구입, 군산행 열차에 오른다.

여름에는 고구마도 썰서 옥수수과 함께 팔았다. 가을에는 감 행상을 하고, 겨울에는 돼지고기를 떼다 팔았다. 이듬해 봄에는 언니 소개로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 노점상 하면서 청과시장 중매인을 알게 되고 거래도 트였다. 중간상을 거치지 않으니 이익도 많이 남았다. 리어카도 한 대 마련한다. 오전에 과일, 채소 등을 한 리어카 팔고 집에 들어가 아기에 젖 주고 오후 장사를 시작했다. 고생은 땀이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행상 1년 만에 전세방 마련

윤씨는 “하루는 애기에게 젖을 주고 배가 고파 부엌에 들어갔더니 언니가 형부랑 조카들 먹으라고 해놓은 밥이 솥에 가득 있었다. 배고픈 참에 조금씩 먹다 보니 바닥이 드러났다. 나이가 스물넷이고 젖먹이 아이까지 있었으니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때였지만, 어떻게 그 많은 밥을 한꺼번에 먹어치웠는지 모르겠다”라며 옛일들을 떠올린다.

“장사가 안돼서 하제(포구)로 조개잡이도 다녔는데,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지 신통치 않더라고요. 하루는 배추와 무를 리어카에 가득 싣고 아침 8시부터 시내를 돌며 배추 사라고 외쳤지만 한 포기도 못 팔았어요. 애기가 싣 오줌이 흘러내려 고무신은 흥건하고, 배는 고프고 삼학동 언덕길을 올라갈 수 없어 신세 한탄을 하는데 손님이 배추 가격을 물어더라고요.

누가 달라고 하면 거저라도 주고 싶었던 때라 큰 바구니에

몽땅 담아줬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가와 서로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리어카를 비웠죠.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다음에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장사해야겠다는 것. 또 하나는 살기 바쁘다고 성당에 나가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길로 성당에 가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또 주일을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성금을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날 이후 장사가 더 잘되고 자리도 잡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창성동 언니 집에서 살았는데 5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어 이사했지요. 언니가 이사 선물이라며 쌀 닷 되를 싸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내 집 장만하다

이사하고 얼마 후 작은 시누이에게 맡겼던 큰딸을 어머니가 데려왔다. 아기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는지 사람만 보면 구석에 숨어 눈을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가슴이 천 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저녁 먹고 곤하게 잠든 딸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윤씨는 앞으로는 절대 아이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남편도 군산으로 온다. 쳐다보기도 싫은 얼굴이지만, 형부가 취직 약속하며 함께 지낼 것을 중



용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조개잡이 배 선원으로 취직된다. 그러나 뱃멀미 때문에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두 번째 직장은 해망동 뱃공장(조선소). 그곳 역시 겨울이 다가오자 일감이 없어 그만둔다. 결국 남편은 윤씨의 과일장사 돕는 일로 새 삶을 시작한다.

윤씨는 스물여섯에 셋째 딸을 낳는다. 식구는 계속 늘고, 전세방 한 칸은 너무 좁았다. 이런저런 궁리 하다가 문득 창성동 말랭이 율락촌 색시들에게 옥수수 팔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때 색시들은 돈이 없어 사 먹지 못하고 손님들이 사줬다. 그래도 팔

다 남은 게 있으면 색시들에게 나눠줬다. 그렇게 손님 쓰면 다음에 손님을 불러 옥수수를 비싸게 팔아줬던 것.

“옥수수 팔아주던 색시들이 생각나 말랭이에 올라갔더니 집들이 모두 덩그러니 비어 있었어요. 담배 가게 아저씨에게 물었더니 색시장사 하던 사람들이 군산극장 뒷 골목으로 내려가 술집을 차렸기 때문에 집을 싸게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색시집이 20여 채 있었는데 방이 열댓 개 되는 제일 큰 집도 70만 원 주면 살 수 있다고 그러고.

방 하나에 천 원씩 월세만 내놔도 먹고는 살겠더라고요. 집은 사고 싶은데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혹시나 해서 언니와 상의했더니 고맙게도 모자란 돈은 내가 사채를 알아보겠으니 꼭 사라는 겁니다. 그길로 집주인에게 달려가 10만 원 건네주고 집을 계약했죠. 그런데 말도 마세요. 잔금 치를 돈 30만 원을 남편이 사기당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계약금만 떼일 뻔했어요.”

윤씨는 전쟁 치르듯 쫓고 쫓기며 남편이 사기당한 돈의 절반을 받아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집을 매입한다. 내 집 마련은 군산 정착 3년 만에 이룬 기적이었다. 그 후 장사가 잘되어 고을의 사채를 앞당겨 갚는다. 집 지을 대지와 전답도 사들이고 건물도 신축한다. 몇 년 전부터는 전남 신안군에 사농은 간척지로 농사지으러 다닌다. 요즘 소일거리 역시 채소행상.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직접 가꾼 채소를 내다 판다는 것이다.

윤씨가 무료함을 느낄 때는 말동무도 되어주고 회고록 원고도 수정해주는 김영기(넷째 딸) 씨는 “엄마는 손자들 용돈도 행상으로 마련한다. 지난 추석 대목에도 역전 새벽시장과 아파트 단지에 좌판을 벌였다”며 “행상은 내년 설에도 계속될 것이다. 정말이지 엄마의 삶은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떻게 좀 해주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위험 호소,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준공 15년 별관, 땀질 처방 계속 건물 안전위협
- 군산시 뒤늦게 구조안전진단, 안전조치 시급 결론

글 | 채명룡(발행인)
cmr0118@naver.com

겨울은 노인들에겐 북병이다. 잠이 멀찍이 달아난 새벽, 운동 나오는 게 습관이지만 뇌졸중 걱정에 문밖 나서기가 두려운 요즘이다. 급격한 온도 차이는 혈관계통의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암담한 그늘과 싸우기 위해 미리미리 대비하려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일 매일 몸부림이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과 아침을 지나 낮 시간동안 찾는 곳이 바로 노인종합복지관이다. 2018년 10월말 기준 등록 회원만 1만1,097명이며, 건강과 취미 등 프로그램을 하거나 경로식당 점심식사 등 하루 평균 1,000여명 내외의 이용객들로 항상 북적이다.

“누가 여기 와서, 이게 맞는 건가 살펴 좀 봐주소.”

탁구교실에 다닌다는 한 할머니가 아들을 통해 ‘100세 시대에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장을 살펴달라고 부탁이 왔다. 미적거리던 두 달이 지났다. 목은 숙제를 하듯, 지난 12월 중순 이 복지관에 들어섰다. 지난 2001년 이래 군산시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처음 질 때는 빨간 벽돌였는데, 갈라지자 뭉로 바르더라고”

“이불 속에서 몽그적거리다간 골로 가기 심상이잖아. 그래서 일찍 나오는데, 여긴 화장실 가기도 두려워. 한번 가봐. 늙은이 뱃가죽 마냥 짝짝 갈라져가지고..... 오줌이나 싸겠는가.”

겨울이 깊어가는 지난 12월 14일 오전 11시쯤의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햇볕은 따사로웠지만 바람 끝은 매서웠다. 본관을 지나 별관에 들어섰다. 멀쩡하게 보이는 이 곳에서 설마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아녀, 여기가 원래 언덕였는데, 강근호 시장 때인가... 새로 지을 땐 빨간 벽돌로 멋지게 지었어. 그런데 5년 전인가 건물이 갈라지고 벽돌이 떨어지게 생기자 지금처럼 벽을 감싸놓은 거여. 저기 옥상 봐봐, 벽돌이 그대로 있잖아?”

외벽이 갈라지고 윗 층부터 보가 뒤틀리면서 비가 새고 안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등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였다. 그런데 대책은 땀땀이 전부였다.

화장실로 들어서자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대로 나타났다. 타일 벽면이 가로 세로로 훑하게 금이 갔고,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위태했다. 이런 곳에서 몇 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급한 용변을 해결해왔다니 이맛살이 찌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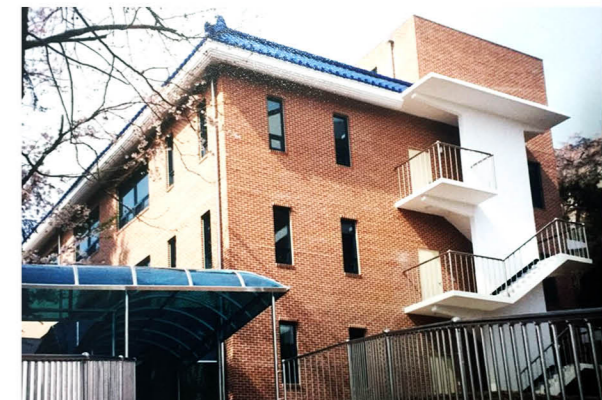
홀로 노인 웨프교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무실의 복합 균열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했다. 설마 군산시가 이런 곳에서 노인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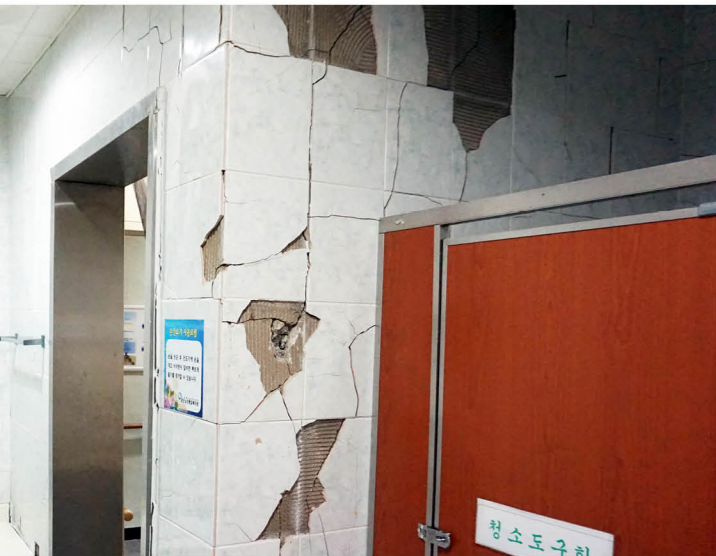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별관 준공당시 붉은 벽돌건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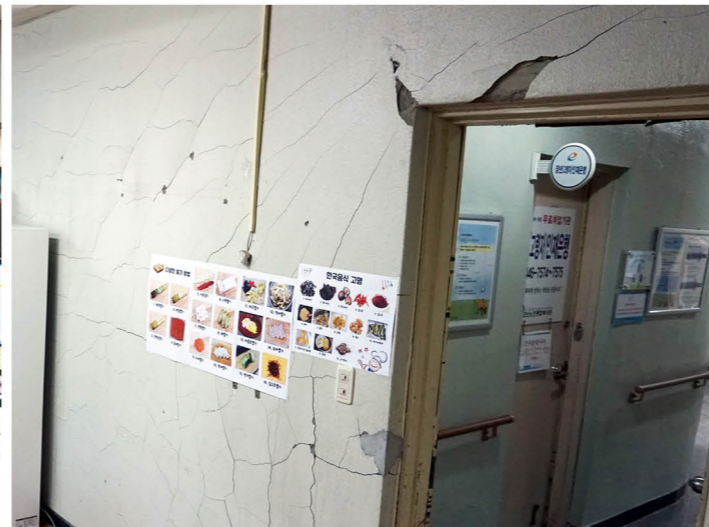
뒤틀린 별관건물의 중요 구조물



별관 화장실의 위험한 상황



사무실 내벽이 위험하게 갈라진 상태인데도 근무를 해야하는 여직원



요리 실습장의 복합 균열 현장



시설은 위험하지만 노인 이용객들은 늘어가고 있다

프로그램을 하고 업무를 보도록 했다 는 것인지 이해가 안됐다.

“3년 전인가, 빗물이 새고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거든. 3층부터 내부 리모델링한다고 깨끗이 치장을 했잖아. 그런데 돈은 겁나게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같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골병이 들을 대로 들은 걸 여기 다니는 노인들이 모를 줄 아는가봐.”

“노인이라고 모를 줄 아는가봐, 무시하는 건지 원”

“1층 현관 근처는 우기만 되면 습기가 적절하게 젖을 정도로 차올라. 이걸 보면 언덕이긴 하지만 물길에 여기로 모인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건물이 이미 틀어질대로 틀어졌는데, 그냥 뭉개고 있는 거여. 노인이라고 모를 줄 아는가 본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2003년에 완공 당시 언덕 경사면을 절개하여 붉은 벽돌 건물을 폼 나게

얹었다. 그런데 건물이 틀어지고 가라앉는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5년여 전부터 이용객들이 계속하여 민원을 냈고 균열이 가고 벽돌이 떨어지는 등 안전이 위협받자 건물 외벽 전체를 외장칸막이로 싸버리는 땀질 처방만 계속되었다.

탁구교실에 들어서자 나이 칠십을 넘어 팔십대의 노인들인가 싶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 인생 100세 시대에 걸맞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열정이 느껴졌다.

알아보니 군산시가 벽체 균열이 심각해지자 가장 균열이 심각한 3층부터 1억5천씩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고 것이다. 내부 2층과 3층에 3억원을 발랐다.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망상 균열(복잡한 갈라짐)의 흔적을

땀질 처방했다. 원인 규명과 치료가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한 셈이다.

건축전문가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약 50년 정도로 본다고 한다. 민간 건축물도 아니고 군산시가 지은 준공 20년도 안된 ‘노인 종합복지관’ 건물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려운 말로 하덜 말고, 알기 쉽게 얘기 허봐”

군산시는 뒤늦게 본관은 제외하고 별관에 대해서만 구조안전진단을 맡겼다. 2018년 12월 10일 (유)센구조엔지니어링은 “건물은 안전하지만 지하수위의 영향으로 지반이 교란되고, 기초의 지내력이 약화되어 천정 보에서 전단 균열이 발견되는 등 총체적인 위기”라고 보고서를 냈다.



페인트로 눈가림한 별관 1층 내벽을 가르키는 이용객



1층 기둥의 복합균열을 지적하는 어르신

보강 방안으로 지반 그라우팅이나 과워필 등 지반 개량 공법으로 지반을 견고하게 하는 한편 기존 붉은 벽돌 조적벽체를 철거해서 건물을 경량화해야 하며, 콘크리트 보에 대해서 철판 보강을, 1층 천정슬래브 휨 균열의 회복 두께 부족에 대해서는 탄소섬유로 보강하도록 했다.

건축전문가 장모씨는 튼튼한 기초위에 지었던 건물이 몇 년 전부터 뺄 위에 지은 것처럼 건물이 망가질 위기라는 뜻이라면서 “이 정도의 망상(복합)균열이 보일정도라면 아마도 건물을 지탱하는 ‘보’나 ‘기둥’에도 심각한 손상이 갔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연약지반이 아니라 지반이 양호한 언덕이었기 때문에 파일 등 지하 기초를 보강하지 않고 독립기초를 하고 건물을 세웠으리라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의 붉은 벽돌 균열을 감춰놓은 외벽과 함께 붉은 벽돌을 모두 철거하여야 하고 지반을 안정화 시키는데 들어가는 시공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강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헐고 새로 짓는 게 맞는지 면민하게 점검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인생 100세 시대의 대표적인 노인종합 시설이 이처럼 깊은 속병을 앓고 있다. 운영은 위탁했지만 건물은 군산시의 재산이다. 걸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놓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고라도 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다.

군산을 사랑하고 영화를 꿈꾼다.

단편영화 제작 동아리 <씨네군산>

글 | 김정일 감독(특별기고)



군산시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후원으로 2016년에 첫 수업이 시작된 '군산 시네마스쿨'.

2016년 6월 '군산 시네마스쿨 수강생 모집' 이란 플래카드를 보고 모인 고등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인들이 모여 4개월 수료 후에 수강생들이 주축이 되어 영화제작에 대한 열정과 갈증을 해소하고자 정기적 모임을 이어가다 2016년 12월에 '군산영상미디어'란 단체명으로 동아리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후 본격적으로 기획, 촬영, 연기, 편집기술등을 배워 꾸준히 작품 제작하였으며 동아리 구성원들이 시나리오부터 마케팅까지 직접 참여하고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어려운 제작 여건 속에서도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품을 하면 할수록 각 회원들의 연기와 기술이 진화하는걸 보면서 흐뭇함을 느끼고 창작에 대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2018년 5월, 11명의 정회원으로 단체명을 '군산영상미디어'에서 '씨네군산'으로 변경하고 군산시와 전주영시미 그리고 서천미디어센터의 지원까지 받게 되면서 3년 동안 10여 편의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 하였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군산시와 서천군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 1회 금강역사 영화제에서 저희 작품들이 상영되는 기쁨도 누렸다.

보통 작품하나당 제작기간은 3개월 정도로 회원들이 본업이 있는 관계로 주말 이틀정도의 시간에 촬영을 마치고 바로 편집에 들어간다.

짧은 촬영기간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40~50만원의 제작비로 제작하는 현실이 너무 아쉽고 어렵지만 전주영시미와 서천미디어센터에서 고맷게도 촬영장비와 일부제작비 지원을 해주셔서 과거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촬영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저희들의 열정과 진정성을 공감해주고 촬영장소를 흔쾌히 내어주시는 지역 상공인 사장님들과 협조해주신 시민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인사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산이 가진 근대역사의 잘 보존된 과거의 모습, 현재의 도시화된 모습, 그리고 과거와 현대의 시간적 공간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룬 군산을 단편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촬영장소 선정에도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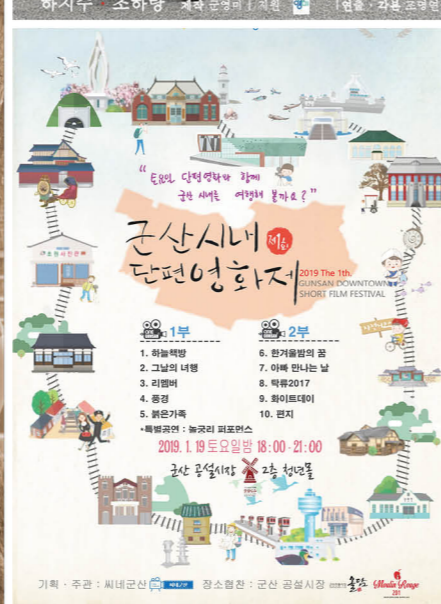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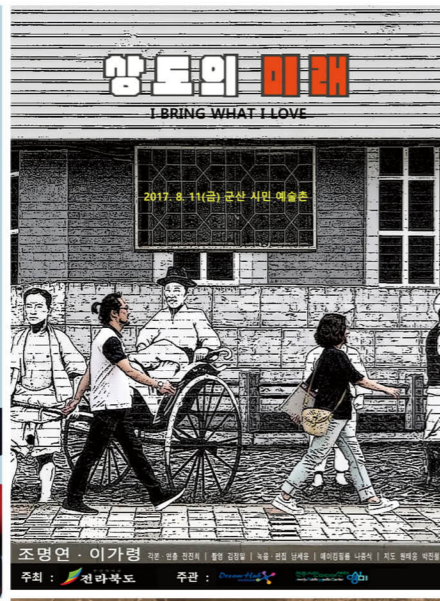
영화인들에게 영화 촬영지로 사랑받고 각광받는 군산에서 정작 군산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영화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시피 한 상황이 늘 아쉽기만 하다.

외부영화인들에게 지원책의 10분에 1이라도 군산의 시민들과 군산의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쓰여 진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동아리회원들이 자비를 들여 영화를 제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나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아쉽다.

비록 아마추어가 만든 거칠고 부족한 작품들이지만 따스한 시선과 관심으로 봐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군산시, 서천군 관계자분들과 전주영시미, 서천미디어센터에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표작>

2016년

그날의 여행

(2016 전북사랑 UCC 공모전 우수상 수상)

뽑기왕

(2016 전북사랑 UCC 공모전 장려상, 특별상 수상)

2017년

풍경

(전북사랑 ucc 공모전 대상, 이디야 컬처클럽 상영)

상도의 미래

(2017 전북독립영화제 "살롱 데 뤼쥘레" 상영)

탁류 2017-그녀를 찾아서

(영화진흥위원회 차세대 시민제작 작품 선정, 제13회

전주시민영상제 개막작 선정)

2018년

리멤버

(2018 전주단편영화제 개막작 / 2018 전북독립영화제 "살롱 데 뤼쥘레" 상영)

화이트데이

(제1회 kiff 코리아인디필름페스티벌 상영)

소원-아빠 만나는 날

(2018년 제 2회 철도영화제 장려상 / 2018년 제 1회

천안국제단편영화제 참가상)

붉은가족

(2018년 제1회 천안국제초단편영화제 동상 / 2018

전주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2019년

하늘책방

(2019년 제1회 군산시내

영화제 개막작)

장소 :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19시 군산공설시장 2층 청년몰

물랑루즈 개봉

하늘책방

시놉시스

결혼과 육아에 지친 친구들을 한심해하며 골드미스로 싱글라이프를 즐기며 살고자하는 박물관 큐레이터인 수연.

그런 그녀가 치근덕거리는 맞선남을 피해 들어간 책방에서 그동안 만났던 남성과는 결이 다른 순수남 세운을 만나게 되면서 그녀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묘한 설렘이 찾아오고... 아날로그 감성의 책방을 통해 이어진 두 남녀의 로맨스가 잔잔하게 진행되어간다.

기획의도

결혼엔 관심이 없는 모든 걸 갖춘 골드미스가 순수한 남자주인공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남들의 시선에 개의치않고 순수한 인성을 가진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을 잔잔히 키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그리고자 하였다.





은파의 풍광을 정원으로 둔 caffé bene

은파호수점
김차남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군산엔 많은 카페가 있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특 트인 자연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은파 수변도로변에 위치한 Caffé bene(카페베네)는 그 중에서도 풍광에 관한 한 탁월함을 자랑하는 업소다.

여류화가로서 지난 2015년 현 위치 부지를 매입, 직접 건축한 김차남 대표는 1·2층 연건평 150여 평 규모의 이 건물을 지을 당시 단순히 카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을 염두에 두었다.

그래선지 건물 외관도 멋스럽지만 내부에서는 넓은 창밖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은파의 정경이 너무 시원스럽고 멋스럽다. 수련과 역새가 바람결에 살랑대는 호수 위로 날아드는 청둥오리며 멀리까지 보이는 주변의 아기자기한 산들의 모습도 손에 잡힐 듯 정겹게 다가온다.

200인치 대형스크린의 문화 공간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분과 이사이자 군산미협 부지부장으로 군산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 대표는 건물 2층에 자신의 갤러리를 구상하기도 했다. 그보다는 시민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재작년부터 김성옥 작가의 전시회를 비롯하여 10여회에 이르는 지역작가들 작품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60석 규모의 공간을 분리하여 20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 동아리 모임이나 세미나, 강습회, 학생들의 야외수업, 기념행사 등을 열 수 있도록 꾸밈으로써 문화적 소통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날도 창밖엔 겨울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은파의 수면이 꿈꿈 얼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었다. 이런 바람을 다스리고 휘영청 수면을 돌아 카페 베네에 들어서면 아늑했다. 아니 어딘가 낯설지 않은 편안함이 가슴을 이완시켜주는 묘한 매력을 풍겼다.

창 밖은 설경이지만 카페의 내부는 여러 목각 캐릭터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반겨주는 안락함이 좋다. 들성들성 눈 더미 사이로 내비치는 앙상한 풀섬이라니.

서양화로 치자면 질긴 생명의 유희쯤으로 보였을 터이고, 한국화나 동양화 작가의 눈에는 인생의 끄트머리에 선 앙상한 가지 혹은 풀기 빠진 목숨 정도로 보였을까. 아무튼 매마른 가운데에서도 어딘가 낯설지 않은 그리운 모습이다.

현재 이곳은 군산시민들은 물론 외지관광객도 많이 찾음으로써 고객도 다양한 연령층에서 늘고 있는 추세다. 김 대표는 2층의 남은 면적을 어떤 문화공간으로 이용할지 구상 중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귀담아 들겠다는데 작년부터 군산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마을카페'를 열어 미술강습도 해볼 계획이다.

아름다운 풍광, 여유롭고 시원스런 갤러리형 내부 공간과 옥내주차장, 구수한 커피 향까지 은파호수점이 군산 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는 것은 시간문제라 보인다.

Caffe bene 은파호수점
 군산시 동지곡길 177-4
 T. 070-8899-6232



답사 둘째 날 동국사 종각 앞에서

“군산에서의 이틀은
특별하고 소중한 날!”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과
'군산 답사' 마치고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지난달 중순, 위경혜 교수(《호남의 극장 문화사》 저자) 전화 받았다. 위 교수는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학생 25명과 군산 답사(11월 30일~12월 1일) 계획하고 있다”며 코스와 경유지 이동 시간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첫날은 옥구향교가 있는 시외곽(옥구 일원)을, 둘째 날은 일제강점기 조성된 원도심권을 돌아보면 효과적일 거라고 귀띔했다.

옥구를 추천한 이유는 군산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조선 태종 3년(1403) 세워진 옥구향교는 단군성묘와 고운 최치원 영정을 봉안한 문창서원, 세종대왕 숭모비, 명륜당, 양사재 등이 자리한다. 특히 양사재는 대한제국이 1899년 5월 군산을 개항하고 그해 가을 설립한 옥구향공립소학교(중앙초등학교 전신)가 입주, 지역 최초로 근대교육을 시작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위 교수는 “직접 스토리텔링 해주실 수 없겠느냐?”고 해설을 제의해왔다.

위 교수에게 “경험도 풍부하고 스피치도 뛰어난 문화관광해설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고 했더니 “지역의 역사 문화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 기자님의 경험담을 듣고 싶다”며 바쁘시면 한나절도 좋다고 했다. 간절히 말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마침 예정된 스케줄도 없어 일제강점기 극장(희소관, 군산좌 등) 분야를 제외한 코스를 모두 안내하기로 하였다.

얼떨결에 맡기는 했으나 고민되었다. 일반인 상대 하루 코스는 몇 차례 해봤지만 대학생은 처음인데다 1박 2일 일정과 해설을 모두 혼자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옥구향교 최성호 선생, 시민예술촌 박양기 촌장, 군산시문화관광해설사회 박미자 회장 등에게 도움을 요청, 승낙을 받았다.



군산 전경 사진(1945년 8월 촬영)



한국농어촌공사 100주년 기념탑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에 자리한 옥구향교



군산삼일운동 100주년 기념관

광주·군산 두 도시의 인연 소개로 답사 시작

첫날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 내걸린 군산 전경 사진 앞에서 시작했다. 1945년 8월 촬영한 대형 항공사진으로 일제패망 전후 시가지와 내항 모습, 부청(시청), 법원, 경찰서, 공회당, 미두장 등의 위치와 도시 변천 과정을 짚어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40년대 도시 모습을 보며 개항 역사와 더불어 야구로 맺어진 광주·군산 두 도시의 인연을 소개했다.

“광주는 우리말로 ‘빛고을’이죠. 군산은 ‘무르뫼’입니다. 두 도시는 서양 선교사들이 호남에 처음 발을 내디딘 19세기 말 인연이 시작되어 1921년 광주 송일학교와 군산 영명학교 야구시합으로 이어지죠. 두 학교 대항전은 호남 야구사에 지방 학교끼리 맞붙은 최초 대교(對校) 경기이자 원정 경기의 효시로 알려집니다. 인연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광주 지역 명문들이 1970년대 ‘역전의 명수’로 소문난 군산상고 영향을 받아 야구부를 창단합니다. 프로야구 원년(1982)에 출범한 해태 타이거즈도 선수 절반이 군산상고 출신이었지요.”

호남지방의 선교 역사와 야구 이야기를 호기심 가득

한 표정으로 듣는 학생들. 그러나 그들은 기아타이거즈는 알아도 해태타이거즈는 언제 누구에 의해 창단되었는지 잘 모르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V10에 빛나는 ‘해태 왕조’를 모르다니 놀라웠다. 하긴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이니 1980년대 초 사건들을 모르는 게 이상할 것도 없었다.

이날 답사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출발 호남관세전시관(구 세관: 사적 제515호), 은파호수공원(한국농어촌공사 100주년 기념탑), 옥구향교(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96호), 임피여(등록문화재 제208호), 옥구농민항쟁 야외 전시장, 영명학교 옛터와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을 돌아보고 시민예술촌에서 기생(妓生)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와 군산시가 제작한 홍보영상을 관람했다.

영명학교 옛터를 돌아본 강승준 학생은 “역사에 관심이 없어 놀러 가는 마음으로 왔지만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군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기대되었다. 역사의 현장에서 해설을 들으니 그때 아픔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고, 김재현 학생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근대화와 지방의 항일 투

쟁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동시에 쇠퇴와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군산과 내 고향이 비교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감상한 최슬원 학생은 “군산에서 촬영한 영화를 떠올리며 여행하는 것도 새로웠고, 종합 예술인으로서의 기생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고 했다. 윤대영 학생은 “일제식민지 아픔과 역사가 묻어 있는 건물들과 군산 시민의 생활상을 보고 느끼며 참된 역사 모습을 몸소 새겼다. 기생과 같은 과거사의 하나의 요소에서는 기존 인식하고 있던 관점과 편견을 벗어나 숨어있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항일운동 심도 있게 탐구해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둘째 날 답사는 오전 9시 동국사(등록문화재 제64호)에서 시작, 히로쓰가옥(등록문화재 제183호), 초원사진관(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 해망굴(등록문화재 제184), 경암동 철길마을, 개복동(희소관, 군산좌, 기

생골목, 콩나물고개) 등을 돌아보고 점심을 먹은 뒤 지난해를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내항(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에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원도심권을 돌아본 오은민 학생은 “군산은 먹거리와 영화촬영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소시오테이를 통해 근대 역사의 아픈 흔적이 피부로 느껴지는 동국사와 히로쓰가옥을 돌아보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했고, 신영환 학생은 “군산 거리를 통해 근대 역사를 접할 수 있었다. 우리 문화와 일제 잔재가 섞여 있는 거리는 군산이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효민 학생은 “일정이 뻘뻘한 가운데 거리의 근대건축문화유산 속에서 사회학적인 요소를 찾고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고, 고지영 학생은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새롭게 복원한 문화유산들이 인상 깊었다. 해설사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문주원 학생은 “항일운동을 심도 있게 탐구해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내 고향 함평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낌을 전했다.



옥구향교에 두 마리 토끼 잡기 체험을 듣는 답사단

“군산은 두 번째 방문이었다.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사적지와 박물관 등을 돌아보다 보니 단순히 놀기 위한 방문이었던 첫 방문과는 사뭇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 같다. 답사 후 먹었던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자리 덕분에 교수님과 동기 및 선배님들과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배움과 친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다.”

“군산은 고등학교 시절 문학기행으로 간 적이 있어 낯익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일본식 절동국사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은 가보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서 문화관광해설사님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사회를 배우는 사회학도로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일본의 수탈로 힘들게 살았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지역마다 과거에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소시오데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여러 지역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또는 현재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을 간접적으로 공감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문화원 학생은 “소시오데이 경험이 지속되면 이를 계기로 모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학과의 정체성 아닐까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서의 이들은 특별하고 소중했다. 덕분에 평소 모이기 힘든 교수님, 학과 친구들, 강사님, 군산 시민들과 교류하고 친밀해질 수 있었고, 새로운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히로쓰 가옥 정원을 돌아보는 답사단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었던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

부담감을 느끼며 시작한 답사는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동행한 교수와 연구원들도 즐거웠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만족해했다. 그래서인지 참가한 학생 대부분 정성이 담긴 후기를 보내왔다. 아래는 학생들이 보내온 답사 후기를 정리하였다.

“군산에 대해서는 이성당 빵집이 유명하다는 것밖에는 몰랐다. 그러나 이번 답사를 통해 군산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군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기생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상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초원사진관 앞에서



대항 철도

2018 군산시민예술촌
문화도시 포럼

기조강연 '문화도시와 지역문화분권 구현 방안' 어떤 내용일까?

정리 | 이준호 문화정책활동가 (특별기고)
jhplay88@daum.net



군산시민예술촌이 개최했던 2018 군산문화도시포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졌을까. 약 한 달 전인 2018년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포럼에서는 정부 문화정책흐름에 대한 이해와 군산문화도시구현에 대한 해법, 군산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함께 찾아보는 자리였다.

이 날 포럼의 기조 강연은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섹션별 도시재생을 주제로 발제를 맡으신 송석기 군산대교수, 박순영 도란도란공동체 사무국장, 이근영 문화도시연구소 대표, 조권능 주식회사 지방 대표 등이 발제를 맡았다.

행사를 주최한 시민예술촌 박양기 총장은 “이 자리가 각계각층의 소리 들으면서 문화예술, 도시재생 서로 상존하면서 좋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군산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발언들이기에 발췌하여 심는다.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문화도시와 지역문화분권 구현 방안'

기조 강연은 '문화도시와 지역문화분권 구현 방안'을 주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인 김기봉 행정학박사가 맡았다.

김기봉 위원은 “민주당 당대표하고 계시는 이해찬 의원을 모시고 군산에서 전국문화대토론회 이후 처음으로 군산을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지역문화정책 할 때에 하나의 톨모델이었던 가나자와에 있는 시민예술촌을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가네자와 시민예술촌은 방적공장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지역이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위해서 재생시킨 공간으로 365일, 24시간 디렉터라고 하는 자원봉사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화환경, 문화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지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 문화정책준비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문화비전 2030을 수립했는데, 최종 문화비전 2030은 2018년 이후에 나올 예정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이 발표하는 발제문의 내용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들은 전부 지역문화정책관실 산하에서 집행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문화도시 선정사업, 도시재생의 문화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이것이 큰 하드웨어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소프트웨어로는 생활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보다 큰 틀에서 정책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문화비전의 슬로건에서 그대로 들어가고 있듯이 '사람이 문화'이다. 그것이 슬로건이자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그 동안의 우리들의 문화정책은 사람이 없는 문화정책들을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2001년도 지역문화의 해 때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정책개념으로 채택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 때 문화부에 지역문화과가 생기면서 창의한국에 지역문화가 민족문화 민속문화 전통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지역의 독자적인 고유성과 보편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범주에 편입되었다고 했다.

전통적인 산업과 제조업보다는 참여정부 때 이루어졌던 공공기관의 이전과 그 다음에 전통산업의 붕괴, 전환에 따라서 모든 도시들이 지방소멸을 두고 어떻게 지역발전들을 해나갈까에 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 기로에 선 군산,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문제

군산도 아마 지금 그런 기로에 서있는데, 지난 시절에는 기업과 공장유치가 지역의 측정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향후 미래 10년 뒤에는 얼마나 그 지역이 창의적인 인력들을 유치하고 그 인력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감수성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10년 뒤의 지역의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에 이미 77개의 문화재단들이 만들어졌고 조만간 기초문화재단 수가 100개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3천명을 넘어서서 수 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전문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발전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시작하면 향후의 10년간의 지역간 문화력의 차이가 향후에 지역간 발전격차로 나타날 것이다.

몇 개의 지역들을 보더라도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과 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이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재단이 거버넌스로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서 주어진 미션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역할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은 건물을 짓고 축제나 행사들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지역문화의 핵심은 얼마나 창의성 있는 인력들을 유치하고 그 인력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의 문제이다.

◇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문화도시는 문화도시와 유사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다. 창조도시, 창의도시, 문화도시이다. 핵심은 창의적 인재가 공통적 지표다. 전라북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곳이 전주다. 음식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일곱 개의 분야별로 그 분야의 자원이 특화되어 있고, 전주의 음식,



부산의 영화, 광주의 미디어, 이천의 공예, 서울의 디자인, 이런 식의 일곱 개 분야별로 지역발전을 이 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개념이다.

문화도시의 개념은 우리 문화정책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광주에 설립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전주가 받아들여서 진척시킨 전통문화중심도시, 부산은 영화문화중심도시, 이런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모델로 만들겠다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 문화도시였고, 이 문화도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국가문화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으로 해서 200억자리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을 내면 국비가 100억이 되면서 이 200억 가지고 5년동안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산 아니면 탤런트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적 성과를 이룬다는 사업이다. 올해는 1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18개가 서류를 통과했다.

18 군산시민예술촌 문화도시 포럼

2018. 12. 5(수요일) 13:30~18:00

>> 참가대상 | 관련현장활동가, 전문가, 공공기관, 시민 등
 >> 참가방법 | 현장등록, 선착순 입장
 >> 개최장소 |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
 >> 주최/주관 | 군산시민예술촌
 >> 후원 | 군산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 문의 | 063-443-7725(군산시민예술촌사무국)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번 정부는 도시재개발이 아니라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공동체를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지역발전의 모멘텀,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바꾸어 얘기한다면 그 지역의 커뮤니티, 공동체들을 어떻게 도시 시대의 정신에 부합되게 만들어 낼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공동체, 커뮤니티에 있고, 그 커뮤니티는 구축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문화적 수단과 방법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화적 도시재생이다.

비어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다시금 찾아 들어와서 먹고 살아가고 가족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국가적 차원의 큰 정책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위해 지역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시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

◇ 설립보다 운영이 중요한 지역문화재단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화활동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그리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주제로 지역문화재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지방단체장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다.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운영이다.

문화재단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대행하고 위임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욕구와 요구를 어떻게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제도로 만들어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중요한 비전이자 미션이다.

우리가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 때는 그러한 취지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자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형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지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향후에 혹시나 군산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다면 군산에서는 제대로 된 문화재단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을 만드는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다. 제일먼저 중간에 문화재단을 만들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얼마나, 직원들 월급은 얼마 주느냐, 그리고 형식적으로 설립 연구용역을 낸다. 그리고 자치단체하고 상의해서 대표이사를 뽑거나 선거 때 도움주신 분 낙산으로 보낸다. 이게 아주 전형인데, 이렇게 하려면 안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

지역문화예술인들과 단체들과 먼저 간담회, 공청회, 집담회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리스트를 만들고, 이 사업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뽑

고, 그 토대위에서 공모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팔길이 원칙,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군산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군산시민예술촌이 지역문화거점 기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문화 협치와 협력 체계 구성

마지막으로 문화협치를 위한 협력체계이다.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이 집행되어지는 방식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고 시군도의회가 심의를 하고 그래서 문화예술단체한테 교부금이나 사업을 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을 이미 방향을 결정해 놓고, 그들을 자문위원회 간담회라고 하는 들러리로 내세우지 말고 실제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별도로 주민문화예산참여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 단체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연말에는 합평회, 평가회를 통해서 좋았던 사업 문제가 있던 사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토론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면, 지금의 방식보다는 주어진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큰 틀의 방향, 제안 정도로 지역문화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고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군산이 앞으로 이런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내는 단초를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비 도비 99억원

의료장비 교체 및 시설보강 추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김영진 원장)은 2019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예산을 98억8,000만원 확보했다고 지난 12월31일 밝혔다. 군산의료원은 2002년 신축이전 후 노후화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냉·난방 공조장비 및 관류 보일러 교체 등 6개 사업과 혈관조영촬영술기-MRI 등 13종에 대해 보강·교체를 완료했다. 2019년도에는 소방 시설 스프링클러 보강 등 7개 사업과 내시경Set 교체 등 29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심혈관촬영 및 시술을 위한 혈관조영촬영술기(Angiography)를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 응급진료시스템을 구축, 2019년 2월경 운영할 계획이다. 또 MERS 등 제2의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격리병상 1인실 2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김영진 원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전라북도의회 및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능보강 국·도비지원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사랑상품권 올해 발행액 판매 안료

2019년에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속 추진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2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는 지난 9월 군산사랑상품권 발매를 시작으로 4개월 만에 총 91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지난 26일 905억원을 판매하며 상품권 판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4개월 동안 8400개소 가맹점을 등록해 상품권 활용 및 활성화 여건을 마련했으며 지역주도형 경제활성화 사업의 성공모델로 정착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상품권 가맹점 8400여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중 10% 이내 매출상승 52%, 10~30% 매출상승 33%, 30%~50% 매출상승 10%, 50% 이상 매출상승 5%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월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응답자의 90% 이상이 군산사랑상품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응답자 73.2%가 가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59.1%가 상품권을 사용한 적 있고 상품권 사용 이후 지역상권 이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붐기된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선한인을 통한 소비유도 정책으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주소지 내 상품권 가맹점 1곳을 포함한 군산시내 가맹점 2곳(음식점 포함) 이상에서 5만원 이상 사용 시 5,000원, 10만원 이상 10,000원, 20만원 이상 20,000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사용자

의 이용 방법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도입은 물론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쇼핑몰을 구축할 예정이며,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정책들을 연계해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을 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상품권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속도감 있는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2,00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킬 계획이다.

■ 아동수당'현금 지급'방식 유지하기로

아동수당에 관한 공청회 시민의견 수렴

군산시는 지난달 17일 개최한 '아동수당에 관한 시민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해 아동수당에 대한 기존의 현금 지급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개최된 공청회에는 아동수당 수혜자와 일반 시민이 참석하여 아동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 시 사용자 제한 및 불편사항 등 군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대한 지적 의견도 나왔다. 시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방식을 전환하기에는 시민의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고, 보호자 선택에 따른 지급 시스템 구축 등 지급여건을 조성하는데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금 지급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건강·행복 함께하는 희망사업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진호)는 지난 12월 20일 군산시 공동가정생활 9개 시설 및 아동양육시설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행복 함께하는 희망사업"을 진행했다. '함께하는 희망사업'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안전망(CYS-Net)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및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조화롭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1388청소년지원단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군산시 1388청소년지원단의 후원을 통해 중앙약국에서 영양제 57개, 흥윤베이커리에서 빵 500개, 밝은마음 정신의학과의원 및 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12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지원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호 소장은 "앞으로도 CYS-Net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여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운영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지난 12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 및 청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센터의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청년센터의 역할은 ▲청년소통 및 네트워크 환경 조성 ▲청년활동 및 취미·여가환경 조성 ▲청년취업역량 개발 환경 조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소통 및 사회참여형 ▲청년가족 및 복지형 ▲청년취업 지원형 ▲청년활동 및 취미 ▲여가형 등 4대 유형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기업가 정신, 도전정신, 지속가능성, 협업의 가치를 주요 가치로 삼았으며, 주요 역할은 ▲창업친화적인 환경조성 ▲지역혁신기반 지속가능한 창업 ▲창업가형 인재육성 환경 조성이다. 창업지원센터의 추진 프로그램은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참여형, 창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형, 실천창업 준비과정인 실천형,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와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형 등 4개 유형을 제안했다. 청년활동 지원과 창업지원의 복합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센터의 특성상 공간구성도 3개 층으로 기능에 따라 구성하여 4차산업 교육실과 세미나실이 있는 교육층과 공유주방, 상담실 등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유층, 코워킹스페이스, 장비실이 있는 창작지원층으로 구성해 센터 간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비를 확보해 장미동 4번지 군산상공회의소 신축회관의 3~5층, 1,208m(360여평) 규모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다.



■ 강임준 시장 신년사

"힘을 합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황금돼지의 복된 기운 속에서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찾아가는 동네문화 카페 등과 같은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지역주도형 경제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상용차 산

업과 연계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기가동을 추구하고, 조선기자재 업체가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진출에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하고, 정책입안 단계부터 투명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지역 농수산물을 지역민이 소비하는 순환 유통구조 확립, 군산방문 500만 관광객이 다시 군산을 찾는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전 세대에 걸친 촘촘한 복지 및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문화예술, 각종 범죄와 사고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마음으로 희망의 군산을 만들어 가는 그 길에, 30만 군산시민 모두가 동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018년 건설교통시책 평가 3개 분야 수상

건설업 활성화 분야 '최우수기관', 주택·건축시책 분야 '최우수기관'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 '도·시·군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2018년 건설교통시책 평가 결과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기업을 토론했다. 건설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5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건설현장 지역자재 적극 사용 및 하도급 시 관내·도내업체 권장, 2018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주택·건축분야에서는 총 8개 분야 22개 항목 38개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공동주택건설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어냈으며, 경관정책 및 건축행정 건설화, 노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커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또한 대중교통 정책 분야에서는 저상버스 운영,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등 대중교통 활성화의 공로가 인정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인수 건설교통국장은 "군산경제 위기 속에서 내년도 시민을 위한 분야별 건설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지사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치아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음식을 찢고, 깨고, 갈아버리다 보니 닳게 됩니다. 닳고 또 닳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지요. 여성에게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앞니가 전방으로 돌출되고, 앞니가 벌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5년에 1mm 정도의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나이 50에 접어들 즈음의 저 역시, 세월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간 어금니를 최근에 신경치료하고 금니를 씌우게 됐습니다. 신경치료를 시술하는 치과의사 입장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이 되면서, 그동안 잊고 있거나 간과하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을 때의 통증, 치료 중에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의 고달픔, 입안에 뿌려지는 물이 목으로, 코로 마구마구 넘어가는 고통, 뿌리 끝 부위의 신경을 제거할 때의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섬뜩함 등... 그래서 요즘엔 환자분들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 공부했고, 경험했ند, 그래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느

새 내 머리에서 희미하게 희석되어 있다는 것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하는구나!" 다 시금 깨닫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도덕을 평생 동안 계속 마음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사람구실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어영부영 하다 마음공부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끈대가 되고, 밤만 축내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애기가 옆길로 너무 많이 샀네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촉각을 가진 곳을 떠올리라고 하면, 손가락이나 겨드랑이가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치아가 가장 민감한 촉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나 해보시게요. 머리카락 하나를 손가락으로 잡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 동안 머리카락이 느껴지는 지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어금니에 물고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 동안 머리카락이 느껴지는 지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어금니의 촉각을 비교해 보는 거지요, 어느 쪽이 더 민감한 지를요. 아마 직접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들 놀라실 거예요. 놀라지 않은 분들은 머릿속으로만, 상상 실험을 하신 분들일 테구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조직인 치아를 치료(깎고, 다듬고, 변형시키고)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정밀

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는 치과치료를 매우 정밀하고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간단한 치료를 할 때도 고도의 집중을 유지합니다. 하루 종일 정신집중해보신 분은 그로인한 피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거예요. 그걸 매일 해야 하기에 치과의사는 스트레스 지수가 항상 높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치료를 간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냥 충치 파내고 적당히 매꾸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똑같은 치과치료에 대해 치과의사의 생각과 자세가, 치료받는 환자의 생각과 입장에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치과의사분들도, 치료를 받는 분들도 치과치료의 섬세함과,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행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 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우선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 사례를 볼까요? 어떤 부부가 공시지가가 2억 원 정도 하는 주택을 4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채가 모두 단독명의로 가정하면, 총 공시지가의 합은 8억 원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 원을 초과하므로 매년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50:50 지분의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자 보유하는 주택의 공시지가 합은 8억 원의 절반인 4억 원이므로 6억 원 이하가 되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한사람 명의일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는 약 2천만원정도인데, 이를 50:50 지분의 공동명의로 할 경우, 1인당 약 7백만원정도이므로 두사람의 세액을 합쳐도 1천4백만원이어서 6백만원정도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공동명의자로 된 사업자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고민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4대 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엄밀히 말해 이는 세금이 아닙니다만, 많은 분이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준조세'에 해당합니다.

가령, 상가나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라고 가정할 경우, 아내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4대보험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어, 4대보험 부담이 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 처분 시 공동명의자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압류 및 가압류 시 공동명의 지분까지도 권리행사가 불가하다는 점 등이 있고, 취

득세나 재산세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계산한 후, 개인별로 단순하게 나눠서 부과되기에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취득 단계에서만 고민하고는 공동명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독명의로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 공동명으로 변경하게 되면 불필요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공동명의 여부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둘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하더라도 4대보험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건보료와 같은 4대 보험 문제만 아니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도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소득세)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전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금번호에서는 지난달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군산에서 부동산 시장의 유망지역과 유망지역과유망부동산 투자 대상에 대해 서술해보기로 한다.

현재 군산의 경기는 대기업의 잇단 철수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 그러한 시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즉 미래마저 불투명하기에 더욱 불안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런 여파로 부동산 시장도 한겨울 날씨가 마냥 매섭게 얼어붙어 몸과 마음이 모두 추워 바짝 웅크리고 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힘들고 춥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고 막연하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언감생심이다.

해서 필자는 군산의 토지시장의 유망 지역에 대해 언급을 해본다. 그 지역으로는 군산시 개정동 일대를 추천해 본다.

군산시 개정동 주민 센터 인근은 도시가 팽창해지거나 군산시의 다중이용 시설 등이 필요할 시 시내 중심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성이 장점이며 전북대학 병원 부지와도 아주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의 용도상 주거지역과 근접하고 있고 현재 토지가 저평가 되어 있어 투자기간이 길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이다.

다음은 옥산 지역을 추천하고 싶다. 이곳은 몇 년 전에 배후지역으로 이미 청사진

이 그려졌던 지역으로 향후 도시가 확대될시 영순위로 꼽히는 지역이며 전용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전주나 익산, 새만금 등으로 이동하기가 용이하여 투자가 그리 나쁠 것으로 보여 지지 않은 곳이다. 이 두 곳은 토지 투자의 원론적인 이론에 부합한 즉 기본에 충실한 투자 패턴이다.

다음은 건물투자의 이론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현재 군산에서 토지의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수송동, 미장동 일대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그곳보다 비싼 토지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시각에 대해 이설이 없을 것이다. 그 비싼 토지위의 건물은 비싼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큰 도로를 따라 오래된 건물에 대해 눈여겨 보라는 것이다. 현재 군산의 남북과 동서를 잇거나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서 이런 대상들을 찾아보는 수고를 해보면 분명 무엇인가가 보여 질 것이다. 행여 보이지 아니하면 필자를 찾아오길 바란다. 건물은 새로운 땅에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전처럼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바라는 요행은 없다고 단언한다. 부동산에도 많은 노력과 연구 그리고 발굴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입지가 좋은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 자리는 하나여서 그와 똑같은 입지의 땅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토지의 특징이다. 이 특징으로 인해 우리가 그런 곳을 선점하여 성형할 줄 아는 능력은 곧 우리에게 부를 준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다.

다음은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투자하기가 겁이 나거나 망설여진다면 유능한 부동산전문가에게 찾아가 끊임없이 자문을 구해보라. 단 공짜로 무엇을 먹으려는 거지 근성은 버려야 한다.

유능한 전문가는 여러분에게 돈을 벌여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하니 그들에게 주는 보수를 절대 아깝다 생각지 마라.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중히 여기는 사안이 있다. 그것은 소통이다. 의뢰를 하는 사람과 그 의뢰의 내용을 듣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인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를 통한 의견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 내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결코 쉬이 목적이 이루어 지지 않음을 명심하고 이 어둡고 추운 겨울의 터널을 잘 넘어가는 지혜를 발휘해 보도록 하자!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호리천리 毫釐千里

티끌 하나의 차이가 천 리의 차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조금의 차이지만 나중에는 대단한 차가 생김을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사기(史記)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나오는 말로 사마천이 사기(史記)에서 춘추(春秋)의 중요성을 말 한 것에서 유래한다.

『춘추 책 가운데 임금을 죽인 자가 36 명이고, 나라를 망하게 한 자가 52 명이며, 제후가 망명하여 그 사직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수없이 많다. 그렇게 까닭을 살펴보면 모두 근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경에는 ‘털끝만한 작은 실수가 나중에는 천리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신하가 임금을 살해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일조일석에 일어나는 변고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 원인이 쌓인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나라를 가진 자는 춘추를 알아야 한다. 춘추를 모르면 앞에 참조하는 자가 있어도 눈치 채지 못하고 뒤에 역적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 신하된 자도 마땅히 춘추를 알아야 한다. 춘추를 알지 못하면 일상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옳은 방법을 모르고 뜻하지 않은 변고를 당해도 알맞은 대처 방법을 모른다. 임금이나 아버지가 되어 춘추의 뜻에 통달하지 못 한자는 반드시 원흉이라는 악명을 듣게 될 것

이다.』 (史記/太史公 自序)
또한 공자(孔子)는 ‘군자는 처음에 신중히 시작하다가 어긋나는 것이 만약 호리(豪厘)와 같다면 뒤에 어긋나는 것은 천리나 된다.’고 했다. 주역에 나오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호리천리(毫釐千里)’라는 성어가 있다. 이 말은 ‘실지호리 차이천리(失之毫釐, 差以千里)’의 줄임이다.

2019년 새 해가 밝았다. 새 해가 되면 누구나 새 바람을 꿈꾸고 새 해 할일을 계획하고 저마다 꿈을 만드는 것이 인 지상정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는 바로 작심삼일(作心三日)의 교훈과 맞물리면서 때로는 사흘도 되기 전에 본 모습으로 회귀하기도 하고 길게는 석달을 넘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새해의 바람을 오롯이 이루는 사람도 있으니 천차만별일 것이다. 결국 한 해의 꿈을 이루는 자세가 바로 호리천리(毫釐千里)의 지혜가 아닐까 한다. 이것은 작게 개인의 꿈에서부터 군산시의 꿈 그리고 전라북도의 꿈 그리고 우리나라의 꿈을 이루는 지혜가 될 것이다.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지혜, 초심을 잃지 않고 따뜻한 배려로 시민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 그런 아주작은 일상의 지혜들이 모여 좀 더 살기 좋은 도

시,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군산공장의 폐쇄로 우리 군산지역은 1만여명이 넘는 실직과 관련 부품 협력사들의 폐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로부터 고용,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관심과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는 제조업의 부재와 체감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의 구축 등 갈 길은 멀지만 걸음은 더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이런 어려운 위기에서 좋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먼 미래를 두고 당장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좀 더 신중히 판단하여 접근하고 보다 세심한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설계하는 일 이니 말이다.

“처음에 신중이 하다가 어긋나는 것이 털 끝 만큼이라도 있다면 훗날 그 차이는 천리나 된다.”는 ‘호리천리’의 교훈을 잊지 않는 새 해가 되기를 바란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군산의 경제인展

근대산업의 거인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삼국시대부터 물류유통과 상업도시였던 군산의 정체성을 조명하기 위해 '군산의 경제인展 - 근대산업의 거인들'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27일부터 3개월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물자들이 활발히 교류했던 군산 특유의 전통적 상업문화를 알리고, 군산경제를 이끌며 평생을 바쳐온 근대기 군산경제 거인들의 꿈과 노력을 확인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준비되었다.



전시는 군산경제인들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군산포(群山浦) 물상객주들에 대한 소개로 출발하여 근대기 군산의 대표 상품과 대표 경제인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전시 구성은 1부 '청어와 조기 그리고 쌀 유통의 포구 군산' / 2부 '군산 민족자본의 중심 객주' / 3부 '개항 그리고 식민지 근대산업' / 4부 '백화주류酒類문화의 신화' / 5부 '합판·제지산업의 신화'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군산의 전통적 상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재조명함으로써 군산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라는 기획의도에서 준비됐다"며,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경제도시 군산의 긍지를 회복시키고 군산이 잠시 격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30여 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매월 평균 8만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5대박물관으로 선정되고,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이 테마단지화되면서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난 관람객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2018 군산시민예술촌 인문활동가 양성사업 결과 발표회

군산시민예술촌이 오는 1월 22일(화)부터 1월 26일(토)까지 군산시민예술촌 문화오락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8 인문활동가 양성사업 문화기반시설형 결과 발표회를 진행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8 인문활동가 양성사업은 인문활동가를 양성, 활용하여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및 지역 친화적 인문활동 모델을 구축하고, 미취업 인문전공자의 지역 기반 활동기회 제공으로 우수인력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인문활동가 양성사업 결과 발표회는 군산시민예술촌이 선발한 이순주, 강명선 두 분 인문활동가의 결과발표회를 겸한 전시회와 설명회로 진행된다. 전시회는 '손바느질로 군산을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6개월간 군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답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설명회는 '나를 찾는 인문독서 시와 인생, 그리고 군산'이라는 주제로 예비인문활동가들의 시작발표와 다담 등으로 진행된다.

인문활동가 양성 파견사업 결과발표회를 시행하는 군산시민예술촌 박양기 총장은 "이번 인문활동가 양성 파견사업 결과발표회를 통해 인문적 소양을 가지신 많은 인문활동가들이 사회적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구 우일극장)
063-443-7725 / www.gsartzone.kr



달그락 선사인, 000 덕분에 행복했어요

달달파티는 매해 12월 말 달그락달그락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으로써 한 해 동안 있었던 달그락 청소년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해 소통하며,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함께 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전하는 자리이다. 이 날은 달그락 활동 청소년, 위원, 자원활동가, 후원자 등이 다함께 모인다. 한 해 동안 참여한 활동에서의 변화를 공유하고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감사한다.



견하고 자신의 성격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이야기하는 윤나연 청소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달그락지기들을 대표하여 달그락 열정상, 감동상, 언론상, 감사상, 위로상, 격려상 등을 받게 된 여섯 명의 달그락지기님들은 하나 같이 자신들은 특별히 한 일이 없



다며 도리어 상을 받게 된 것에 미안해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함께 해보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은 '따뜻한 달그락의 향해'라는 주제로 이날 모인 달그락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태풍을 넘어설 수 있는 배의 원동력은 엔진이데, 그 엔진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2019년에도 청소년자치연구소와 달그락의 목적과 가치에 맞는 활동들을 함께 해나가자고 말했다. 달달파티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가며 서로에게 나누 마지막 인사는 진정 우리 모두를 위한 인사였다.

"감사합니다. 000님. 덕분에 행복했어 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행복한 한 해였어요"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이 만들어지고 매해 달달파티의 참여자 수가 늘어나더니, 어느덧 올해에는 200여명에 가까운 달그락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청소년 친화적이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여명의 사람들을 달그락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워 외부 기관을 대관했다. 달달파티를 진행한 위치와 주소는 달라졌지만, 변화의 확인과 감사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달그락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바로 달그락 달그락 이었다.

락 꿈뜨락' 북콘서트, 달그락 어워즈로 이어졌다. 예정되었던 2시간의 파티 시간을 30분이나 훌쩍 넘기는 동안 누구 하나 지루한 기색 없이 자리를 지키며 함께 했다.

달그락 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한 발표 "달그락 선사인" 시간에 황두환 청소년은 '함께'의 힘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고, 자신의 꿈을 확고히 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조재식 청소년은 노래방이나 PC방에 가는 것보다 달그락에 오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한민영 청소년은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며, 항상 토론하고 소통했던 달그락의 원탁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꿈을 받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달그락 달그락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2019 01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입니다. jay0810@hanmail.net

EXHIBIT 전시/축제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스승과 제자의 랑데부 피아니스트 오정선&윤지웅 인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3회 드볼레발레 정기공연 군산예술의전당
06	07	08	09	10	11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교향악단 제57회 특별기획음악회 신년음악회 군산예술의전당			2019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3	14	15	16	17	18	19
2019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전주 필 청소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9 전주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엠씨더맥스 콘서트 - 전주 JAPT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6	21	22	23	24	25	26
		신밧드의 모험 군산예술의전당				
27	28	29	30	31		



전시

군산예술의전당
제18회 군산어르신예술제 및 작품발표회
2019-01-23 ~ 2019-01-25
기획전시 - 워터베이비 전
2019-01-29 ~ 2019-02-28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12.20(목)~02.24(일) 키즈랜드&체험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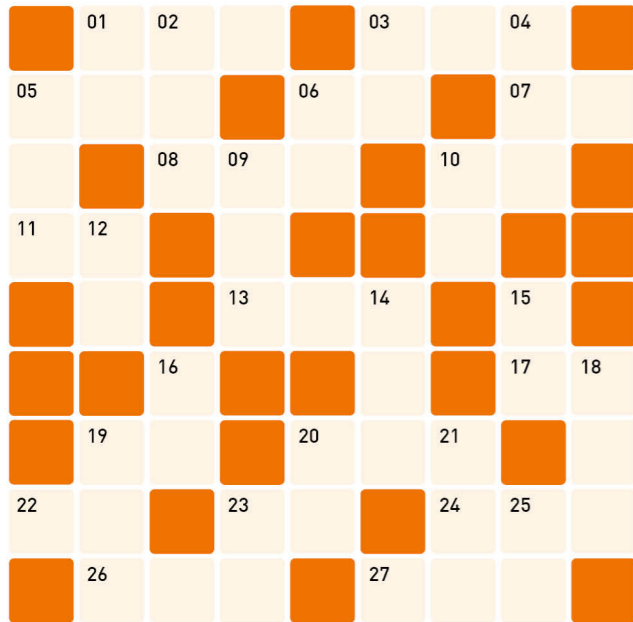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 | | |
|---|--|--|
|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개정동 413
(063) 452-4075 |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신흥동 58-10
(063) 445-9331 | 삼성애육원
군산시 신흥동 7
(063) 445-5947 |
| 일맥원
군산시 문화동 824-7
(063) 462-2385 | 신광모자원
군산시 나운동 1242-9
(063) 462-7749 |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나운동 845-9
(063) 461-8572 |
|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58-8
(063) 466-6088 |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
(063) 464-9944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

날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워 크로스워드 퍼즐 90



<제89호 퍼즐 정답>

송	년	회			금	산	사
업		자	석		우	연	추
주	일		청	심	환		크
		부	사	궁		대	리
		일	교	차		라	오
		처	가		형		리
화	제		통	사	정		스
수		동	지		적	성	모
분	위	기				에	어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1 2018년도는 개띠해인 무술년, 2019년도는 돼지띠해인 ○○○.
- 03 유럽 제국에서 왕관을 머리에 얹어서 왕위에 올랐음을 공표하는 의식.
- 05 경남, 전남, 전북에 걸쳐있는 큰 산으로 노고단과 천왕봉, 청학동 등으로 유명하다.
- 06 용모를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 ○○체조.
- 07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의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
- 08 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
- 10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암세포가 ○○되다.
- 11 새로 들어옴. 또는 그 사람.
- 13 머리 위의 숫구멍이 있는 자리.
- 17 물거품.
- 19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 20 많은 섬이 산재하는 해역. 전라남도와 대한해협 사이의 바다.
- 22 일정한 직사가 없이 높고먹던 말단 양반 계층. 돈 잘 쓰고 잘 노는 사람.
- 23 등에 지기 위하여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꾸린 짐.
- 24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도록 흔히 노인들이 쓰는 안경.
- 26 '우상'이라는 뜻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을 일컫는 말.
- 27 '터키'의 한자 음역어.

▼ 세로 열쇠

- 01 바둑에서 수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이치.
- 02 아이를 낳을 달.
- 03 대신하여 다른 것을 씌. 또는 그런 물건.
- 04 하릴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을 비아냥조로 이르는 말.
- 05 젊은 층의 용어로,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사게 만드는 가상의 신(神).
- 06 아직 알지 못함.
- 09 본선이 조난한 경우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쓰는 작은 배.
- 10 중국의 옛 풍습의 하나로, 여자의 발을 작게 하기 위하여 헝겊으로 싸 감는 일. 또는 그런 발.
- 12 조금도 거짓이 없는 말.
- 14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성욕, 또는 성적 충동.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기초 개념이기도 하다.
- 15 교도관의 예전 용어. 철도 건설목을 지키는 사람.
- 16 늑대.
- 18 어린 아이의 작은 이불.
- 19 영양과 발육상태가 아주 좋은 아기.
- 20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함. 나는 꼭 성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했다.
- 21 해가 막 솟아오르는 때. 또는 그런 현상.
- 23 아궁이의 양쪽에 세우는 돌.
- 25 골프에서, 기준 타수보다 하나 많은 타수로 공을 홀에 넣는 일.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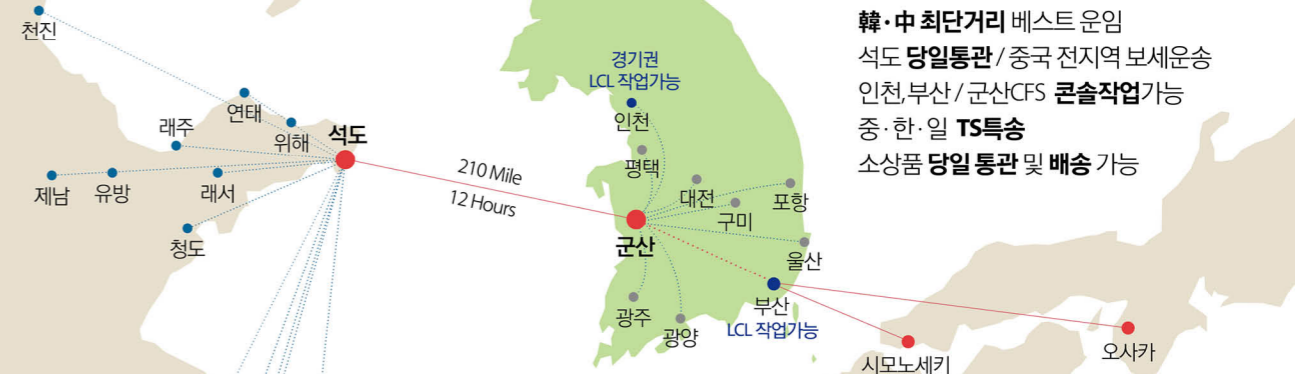
SHIDAO International Ferry

VESSEL NAME: M.V. NEW SHIDAO PEARL(화, 목, 일)
 총톤수 19,988톤 / 여객정원 1,200명 / 화물적재 335TEU
 VESSEL NAME: M.V. SHIDAO(월, 수, 금-토)
 총톤수 17,022톤 / 여객정원 750명 / 화물적재 203TEU



군산 ↔ 석도
 (Gunsan) (Shidao)
 주 6항차

韓·中 최단거리 베스트 운임
 석도 당일통관 / 중국 전지역 보세운송
 인천, 부산 / 군산CFS 콘솔작업가능
 중·한·일 TS특송
 소상품 당일 통관 및 배송 가능



운항일정 ●M/V SHIDAO ●M/V NEW SHIDAO PEARL

기항지	입출항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군산	입항	9:00	9:00	9:00	9:00	9:00		9:00
	출항	20:00	18:00	20:00	18:00		20:00	18:00
석도	입항	9:00	9:00	9:00	9:00	9:00		9:00
	출항	18:00	20:00	18:00	20:00		18:00	20:00

* 운항일정은 군산항·석도항의 조석변화 및 기상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운항시간 문의 : 군산 063-441-1200 / 석도 (001)86-631-728-6666

선적문의 / 담당자

군산 본사	주소	전북 군산시 임해로 378-14
	화물팀	박철민 이사, 주은정 차장, 김종빈 계장, 조승연 계장 tel. 063)441-1213~1215 fax. 063)441-1210/1211
	여객팀	홍경선 부장, 문정선 과장 tel. 063)441-1222/1223/1232 fax. 063)441-1220
서울 지사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501호
	화물팀	김현규 이사, 박원주 과장, 오세은 대리 tel. 02)725-7811 fax. 02)725-1671
CY/운송사		(주)제법 이성길 차장, 문상훈 계장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인천 CFS		인천항공동물류(주) 임채은 사원 tel. 032)885-4511 fax. 032)885-4022
부산 CFS	영업	김현규 이사 tel. 02)725-7811 tel. 010-3364-7031
	업무	박원주 과장 tel. 02)725-7811 fax. 02)725-1671 (Closing Time 화, 수, 목, 토 12:0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